방통융합미래
전략체계연구

지정2012-19

방송 프로그램의 세부 분류기준 및 도입방안 연구

The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Television Program Types and its Introduction of Television Programming Policy

주창윤/황성연/유승현

2012. 10

연구기관 :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 보고서는 2012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통융합미래전략체계 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방송 프로그램의 세부 분류기준 및 도입 방안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10월

연구기관 :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총괄책임자 : 주창윤(서울여자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

참여연구원 : 황성연(AGB닐슨미디어리서치 연구위원)

유승현(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

김영군(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

목 차

요약문 ····· viii

제1장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과정 ····· 5

제2장 방송 편성규제와 프로그램 유형 기준 ····· 8

제1절 방송편성 규제의 삼분류 체계 ····· 8

1. 1964년 방송법: 편성규제 ····· 9
2. 2000년 통합방송법: 오락 프로그램 최대편성기준 ····· 10
3. 2004년 방송법: 오락 프로그램 규제 ····· 11

제2절 편성규제의 방송이념으로서 공익성 ····· 16

제3절 방송 프로그램 유형 분류 ····· 21

1. 국내 방송 프로그램 유형 분류 ····· 21
2. 외국 방송 프로그램 유형 분류 ····· 24

제4절 방송 프로그램 유형 혼종현상: 오락 프로그램의 유형 구분 ····· 27

제3장 방송전문가 심층 집단 토론 ····· 31

제1절 심층 토론 목적 ····· 31

제2절 주요 토론내용 ····· 33

1. 보도, 교양, 오락의 삼분법 논의 ····· 33
2. 유형 분류가 모호한 프로그램 논의 ····· 40
3. 오락 프로그램 최대편성기준 폐지 논의 ····· 45
4. 소결 ····· 49

제4장 시청자 프로그램 유사성 인식 ····· 50
제1절 조사 개요 ····· 50
1. 조사방법 ····· 50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50
제2절 조사결과 ····· 52
1. 뉴스와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유사성 평가 ····· 52
2. 토론 프로그램의 유사성 평가 ····· 54
3. 음악 관련 프로그램의 유사성 평가 ····· 56
4. 버라이어티 쇼의 유사성 평가 ····· 58

제5장 방송 프로그램 유형 분류 기준 ····· 60
제1절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 기준변화 ····· 60
제2절 보도 프로그램 ····· 64
1. 뉴스 ····· 64
제3절 교양 프로그램 ····· 66
1. 시사정보 ····· 67
2. 다큐멘터리 ····· 68
3. 생활정보 ····· 69
4. 토론 ····· 71
5. 교육·문화예술 ····· 72
제4절 오락 프로그램 ····· 73
1. 드라마 ····· 74
2. 버라이어티 쇼 ····· 76
3. 오디션/서바이벌 ····· 77
4. 토크쇼 ····· 78
5. 음악 쇼 ····· 79
6. 퀴즈와 게임 쇼 ····· 79

7. 코미디 ····· 80
8. 영화 ····· 80
9. 스포츠 ····· 81
10. 애니메이션 ····· 81

제6장 프로그램 유형분류체계에 따른 편성분석 ····· 83
제1절 분석개요 ····· 83
제2절 편성비율 분석 ····· 84
제3절 채널별 프로그램 분류 ····· 85
1. KBS1 ····· 85
2. KBS2 ····· 86
3. MBC ····· 87
4. SBS ····· 88
5. 채널A ····· 89
6. JTBC ····· 90
7. MBN ····· 91
8. TV조선 ····· 92

제7장 결론: 도입방안 및 편성고시(안) ····· 93
제1절 프로그램 유형분류 도입방안과 산정기준 ····· 93
1. 최근 방송 프로그램 유형분류 논란 ····· 93
2. 방송 프로그램 세부 분류기준과 편성비율 산정 ····· 94
제2절 방송 프로그램 세부 분류기준과 편성비율 산정에 관한 고시(안) ····· 98

참고문헌 ····· 102

표 목 차

〈표 2-1〉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대한 방송법 시행령의 변천 ····· 12
〈표 2-2〉 방송위원회 프로그램 유형 분류 ····· 22
〈표 2-3〉 국내 방송사와 관련 산업 프로그램 유형 분류 ····· 23
〈표 2-4〉 외국 방송사와 규제기구 프로그램 유형 분류 ····· 25
〈표 4-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속성 ····· 51
〈표 5-1〉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 기준 변화 ····· 60
〈표 5-2〉 보도 · 교양 · 오락 분류체계와 프로그램 유형 ····· 63
〈표 5-3〉 뉴스 하위유형 ····· 65
〈표 5-4〉 교양 프로그램 중분류(유형) ····· 67
〈표 5-5〉 시사정보 하위유형 ····· 68
〈표 5-6〉 다큐멘터리 하위유형 ····· 69
〈표 5-7〉 생활정보 하위유형 ····· 70
〈표 5-8〉 토론 하위유형 ····· 71
〈표 5-9〉 교육 · 문화예술 하위유형 ····· 72
〈표 5-10〉 오락 프로그램 중분류(유형) ····· 74
〈표 5-11〉 드라마 하위유형 ····· 76
〈표 5-12〉 버라이어티 쇼 하위유형 ····· 77
〈표 5-13〉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 하위유형 ····· 78
〈표 5-14〉 토크쇼 하위유형 ····· 78
〈표 5-15〉 음악 쇼 하위유형 ····· 79
〈표 5-16〉 퀴즈와 게임쇼 하위유형 ····· 79
〈표 5-17〉 코미디 하위유형 ····· 80
〈표 5-18〉 영화 하위유형 ····· 80
〈표 5-19〉 스포츠 하위유형 ····· 81
〈표 5-20〉 애니메이션 하위유형 ····· 82

〈표 6-1〉 분석 대상 프로그램 채널별 분포 ····· 83
〈표 6-2〉 유형분류를 적용한 분야별 편성비율 ····· 84
〈표 6-3〉 유형분류를 적용한 KBS1 프로그램 ····· 85
〈표 6-4〉 유형분류를 적용한 KBS2 프로그램 ····· 86
〈표 6-5〉 유형분류를 적용한 MBC 프로그램 ····· 87
〈표 6-6〉 유형분류를 적용한 SBS 프로그램 ····· 88
〈표 6-7〉 유형분류를 적용한 채널A 프로그램 ····· 89
〈표 6-8〉 유형분류를 적용한 JTBC 프로그램 ····· 90
〈표 6-9〉 유형분류를 적용한 MBN 프로그램 ····· 91
〈표 6-10〉 유형분류를 적용한 TV조선 프로그램 ····· 92
〈표 7-1〉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 유형분류 ····· 96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 5
[그림 1-2] 방송 프로그램 유형분류 추진전략 ····· 6
[그림 1-3] 연구진행 과정 ····· 7
[그림 2-1] 방송의 공익성 관련 편성정책 핵심가치 ····· 17
[그림 2-2] 주요 오락프로그램의 범주화 ····· 29
[그림 4-1] 〈SBS 8시 뉴스〉 상대적 유사도 ····· 52
[그림 4-2] 〈생생정보통〉 상대적 유사도 ····· 53
[그림 4-3] 〈백지연의 끝장토론〉 상대적 유사도 ····· 55
[그림 4-4] 〈100분 토론〉 상대적 유사도 ····· 55
[그림 4-5] 〈나는 가수다〉 상대적 유사도 ····· 56
[그림 4-6] 〈뮤직뱅크〉 상대적 유사도 ····· 57
[그림 4-7] 〈유앤아이〉 상대적 유사도 ····· 57
[그림 4-8] 〈댄싱위드 더 스타〉 상대적 유사도 ····· 58
[그림 4-9] 〈정글의 법칙〉 상대적 유사도 ····· 59

요 약 문

1. 제목

방송 프로그램의 세부 분류기준 및 도입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의 목적은 방송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세부 분류기준과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마련하는데 있다. 최근 방송 프로그램 유형은 급속히 변화되어 왔다. 다양한 프로그램 유형들의 혼종 현상이 두드러지고,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부상하고 있다. 또한 종합편성 채널들은 보도와 교양이 혼합된 프로그램들을 편성하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 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방송사의 제작 방식, 방송시장의 변화, 프로그램의 혁신(innovation), 시청자의 취향 등이 결합되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 세부 분류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1993년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형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와 2004년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설정 기준'을 잇는 연속적인 프로그램 유형분류 작업이다. 프로그램 유형분류는 방송법 제69조 3항과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1항에 근거하여 편성비율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특히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8항은 "방송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0.10.1)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8항에 의거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위한 기초 작업을 마련하고, 편성고시(안)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이 연구는 여섯 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변화를 파악했다. 200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프로그램 유형의 특성을 파악해서 기존 프로그램 유형분류 체계 내에서 포함시킬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를 판단했다. 새롭게 부상하는 프로그램 유형들로 리얼리티 쇼,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 버라이어티 쇼 등의 오락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둘째, 방송전문가(학계와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집단 토론을 통해서 논란이 되는 프로그램 유형을 검토하였다. 방송전문가의 심층토론은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주요 토론 내용은 방송 프로그램 편성규제의 기본 원칙인 보도, 교양, 오락의 삼분류에 대한 의견, 유형 구분이 애매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범주화, 오락 프로그램 최대편성기준 폐지에 대한 논의 등이었다.

셋째, 시청자 프로그램 유형 인식조사를 통해서 분류가 모호한 프로그램에 대한 안정적인 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시청자 프로그램 유형 인식조사는 24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유사성을 살펴보았다.

넷째, 프로그램 유형변화, 방송 전문가 심층토론, 시청자 프로그램 유형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 프로그램 유형을 재분류했다.

다섯째, 재분류된 방송 프로그램 유형을 기준으로 2012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달 동안 지상파 3사와 4개 종합편성채널의 편성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방송 프로그램 세부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새롭게 분류된 프로그램 유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와 편성비율을 산정하는 편성고시(안)를 제안하였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방송 전문가 심층 집단 토론

방송 전문가 심층 집단 토론은 특별한 합의점에 도달하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

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학계, 방송현업, 시민단체 사이에 프로그램 유형 분류기준과 편성규제를 놓고 상이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시민단체 의견은 오락 프로그램의 최대 편성기준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좀 더 강력한 편성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방송현업은 오락 프로그램의 최대편성기준이 현재 방송환경에 맞지 않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계의 대다수 의견도 폐지였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유형 혼종 현상으로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의 분류 자체가 모호하고, 오락 프로그램만이 규제되어야 하는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는 폐지하지만, 민주적 여론형성에 중요한 보도 프로그램이나 방송의 공익성과 관련된 다양성, 지역성, 사회적 약자의 보호, 문화정체성 등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편성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방송의 다양성과 관련된 최소편성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시청자 프로그램 유사성 인식조사

시청자의 프로그램 유사성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시청자는 뉴스로서 보도 프로그램, 시사정보,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토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백지연의 끝장토론>은 <100분 토론>과 유사하게 인식하고, 음악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대중음악을 다루지만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은 별도의 유형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기존의 음악 프로그램인 가요순위 쇼나 토크 음악쇼와는 다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3) 방송 프로그램 유형 분류기준

이 연구는 최근 방송 환경변화와 프로그램 유형의 변화를 고려해서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을 총 16개로 구분하였다.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수는 2004년과 2012년 사이에 차이가 없으나, 2004년과 2012년 방송 프로그램 유형분류 기준에서는 네 가지 영역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 2012년 방송 프로그램 유형분류는 오락 프로그램을 세분화했다. 2004년 방송위원회 분류에서 오락 프로그램은 8개 유형이었다. 반면 2012년 오락 프로그램의 유형은 10개로 확대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현 방송법 시행령 편성규제가

오락 프로그램의 50%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서 오락 프로그램의 분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오락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유형 혼종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서 방송 프로그램의 진화 과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2004년의 경우, 버라이어티 쇼에는 토크 쇼가 하위유형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2012년에는 토크쇼를 중분류 유형으로 분리했고,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가했다. 왜냐하면 지난 몇 해 동안 가장 부상한 유형은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고, 토크쇼는 편성비율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2004년 교양 프로그램의 유형수는 7개였지만, 2012년에는 5개로 축소했다. 2004년 전후 유행했던 프로그램은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이 중분류 유형으로 분리하기에는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수가 너무 적었다. 따라서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은 중분류로 구분하지 않고 생활정보 프로그램의 하위유형에 포함시켰다.

셋째, 2004년에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중분류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2012년에는 어린이 프로그램이라는 별도의 중분류 유형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프로그램 유형 분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을 통한 분류가 아니라 시청대상을 통한 분류이다. 지상파의 경우, 유아교육 프로그램인 <TV유치원 파니파니>와 <뽀뽀뽀 아이조아>를 제외하면 대부분 애니메이션을 편성하고 있다.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분명한 교육적 목적을 갖고 있어서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하위유형으로 이동했고, 애니메이션은 그대로 중분류 유형으로 구분했다.

넷째, 애니메이션과 퀴즈는 프로그램의 기능과 내용에 따라서 오락 혹은 교양으로 분류한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교육적 목적이 뚜렷하거나 퀴즈쇼에서 <도전 골든벨>이나 <우리말 퀴즈> 등과 같은 교육과 교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하위유형으로 분류했다.

결과적으로 2012년의 방송 프로그램 유형 분류기준은 프로그램의 유형 변화와 실제 편성비율을 반영했고, 분류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4) 편성비율 분석

2012년 8월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 편성분석 결과를 보면, KBS2의 오락편성 비율은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의 오락 편성비율을 보면, KBS1 20.08%, MBC 45.88%, SBS 43.61%, 채널A 24.61%, JTBC 35.43%, MBN 19.66%, TV조선 25.31%였다. KBS2와 MBC의 경우, 상당수의 애니메이션을 교육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교양으로 분석하였으나, 이들을 오락으로 판단할 경우 오락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1) 방송 프로그램 세부 분류기준

방송법 제69조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서 보도, 교양, 오락의 삼분류 체계에 포함되는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보도	교양	오락
뉴스 (종합 뉴스, 스트레이트 뉴스, 지역 뉴스, 북한 뉴스, 국제 뉴스, 경제 뉴스, 기상 뉴스, 스포츠 뉴스, 비정규 편성보도(기자회견, 재난방송, 특별 행사중계 등)	시사정보	드라마
	다큐멘터리	버라이어티 쇼
	생활정보	오디션/서바이벌
	토론	토크쇼
	교육·문화예술	코미디
		영화
		음악쇼
		스포츠
	애니메이션, 퀴즈와 게임쇼	

보도 프로그램은 뉴스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뉴스 프로그램은 종합 뉴스, 스트레이트 뉴스, 지역 뉴스, 북한 뉴스, 국제 뉴스, 경제 뉴스, 기상 뉴스, 스포츠 뉴스, 비정규 편성보도(특별행사중계, 기자회견, 재난방송 등)을 포함한다. 교양 프로그램은 시사정보,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오락 프로그램은 드라마, 버라이어티 쇼, 오디션/서바이벌, 토크 쇼, 코미디, 영화, 음악 쇼, 스포츠이다.

2)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과 (가칭) 방송 프로그램 유형 판정위원회 설치

편성비율 산정은 방송사들이 제시하는 편성표에 기반하지 않고, 실제 방송된 프로그램의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한다. 다만 스포츠의 경우, 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1조(편성비율 산정 및 산정제외 방송시간) 4항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그 밖의 주요 행사 또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은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은 편성비율산정에서 제외한다. 편성비율은 유형분류 기준에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 유형을 분류해서 산정한다.

방송 프로그램 유형 판정과 편성비율 산정을 위해서 (가칭)'방송 프로그램 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를 운영한다. 판정위원회의 역할은 세 가지이다. 첫째, 판정위원회는 방송법 제69조(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등)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방송 프로그램 편성 등) 2항에 따라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산정한다. 현재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산정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편성비율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판정위원회는 분기별로 편성비율을 산정해서 보고서로 제출하고, 분기별 보고서에는 프로그램 유형분류 기준을 적용해서 매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 비율을 담는다.

둘째, 판정위원회는 특정 방송사가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위반했을 때, 이의를 제기할 경우 특정 프로그램의 유형이 어디에 속하며, 보도인지, 교양인지, 오락인지를 판정한다.

셋째, 판정위원회는 각 방송사 편성담당자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방송사들이 방송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편성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6. 기대효과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 프로그램의 세부 분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가 편성정책을 수립하고 감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방송사들은 방송 프로그램의 세부 분류기준에 따라서 편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기준이 제시됨으로써, 방송법 제69조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1호에서 규정하는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명확히 계산할 수 있다.

넷째, (가칭) 방송 프로그램 유형 판정위원회의 설치를 통해서 편성규제와 정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다섯째, 방송 프로그램 유형과 편성비율 산정의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방송평가위원회가 방송 편성관련 제 규정 준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SUMMARY

1. Title

The Study of the Classification of Television Program Types and its Introduction of Television Programming Policy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e classification of broadcasting program types are the preliminary data for the broadcaster's programming strategies, the broadcasting regulatory organization's policy and its enforcement, and broadcasting industries and its markets (advertisement, etc.). The classification of broadcasting program types are constantly changing, combined with the way of broadcasting production, the change of broadcasting markets, program innovation, the preference of viewers and m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in accordance of the Broadcasting Act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50 section 8, to provide the basic work for the criteria of detailed broadcasting program classifications and the scoring criteria of broadcasting program ration.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is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through six stages. Firstly, we researched recent trend of broadcasting program types such as reality shows, survival and audition programs.

Secondly, we studied the controversial program type through in-depth group discussion targeted for broadcasting experts, concerning with three classification system such as report, culture and education and entertainment, entertainment programming ratio and emergent broadcasting program types.

Thirdly, we proposed the reliable standards of classification for the ambiguous program types through the survey for viewer's recognition of broadcasting program types.

Fourthly, we reorganized the broadcasting program types reflecting the recent changes of program types, the results of in-depth group discussion and the viewer's recognition.

Fifthly, we analyzed the programming ration of four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ies, KBS1, KBS2, MBC, SBS and four comprehensive programming channels, Channel A, TV Chosun, JTBC and MBN from August 1st 2012 to August 31st 2012 for one month.

Finally, we proposed the scoring criteria of programming ratio, and its guidelines.

4. Research Results

Under the broadcasting Act Article 69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50, the programs included in three classification systems, such as report, culture and education, and entertainment, are as follows.

Reporting	Culture and education	entertainment
news	current affairs	drama
	documentaries	variety shows
	information in general	audition/survival show
	discussions	talk shows
	education and arts	comedy
		film
		music shows
		sports
	animation, quiz and game shows	

Reporting program refers to the news programs. News program includes general news, strait news, local news, the North Korean news, international news, economic news, weather reporting, sports news, and irregularly programming reports(special events, press conference, disaster reporting etc.). Culture and education program refers to current affairs, documentaries, information in general, discussions, and education and arts programs. Entertainment programs means drama, variety shows, audition/survival shows, comedy, movies, music shows, sports, animation, and quiz and game shows.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We suggest to manage the "Judgment Committee of Broadcasting Program Type"(Tentative name)(the "Judgment Committee"). The Judgment Committee has three roles. Firstly, the Judgment Committee, in accordance of the Broadcasting Act Article 69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50 Section 2, decides the ration of reporting, culture and education, and entertainment programming.

Secondly, the Judgment Committee shall decide "where does the particular program belong to", whether a particular program is reporting, culture and education or entertainment when a particular broadcasting company violates the Broadcasting law.

Thirdly, the Judgment Committee shall guide the broadcasting companies through the regular communications with the programming managers of each broadcasting company to follow the ration under the Broadcasting Act ordinance enforcement.

6. Expectations

This research provides the clear criteria for programming policy by proposing the program types classification which were controversial in the past. It also supples the scoring criteria for the broadcasting programming, so it could exactly calculate the entertainment program ration. Finally, it could be used as the useful data for the broadcasting assessment.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Programming Regulation and the Criteria of Broadcasting Program Types Classification

Chapter 3. In-depth Discussion for Broadcasting Experts

Chapter 4. The Viewer's Recognition of Program Types

Chapter 5. New Criteria of Broadcasting Program Types Classification

Chapter 6. Analysis of the Broadcasting Programming

Chapter 7. Conclusions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방송 프로그램 유형(type)[1]분류는 방송사의 편성목표와 전략수립, 방송규제기구의 편성정책 수립과 집행 그리고 방송 산업과 시장(광고 등)을 위한 기초 자료이다. 방송 프로그램 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방송사의 제작 방식, 방송시장의 변화, 프로그램의 혁신(innovation), 시청자의 취향 등이 결합되어 끊임없이 변화한다.

방송사, 방송규제기구, 학계, 방송관련 산업(조사회사, 광고대행사 등)은 방송 프로그램 유형을 다르게 규정한다. 방송 프로그램 유형을 구분하는데 동일한 기준이 설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유형 구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학계는 비평과 편성의 다양성 분석을 위해서 유형을 구분한다. 방송사는 프로그램 제작 부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방송규제기구는 방송법이 규정하는 편성규제에 맞게 유형을 분류한다. 방송관련 산업은 광고단가와 시청률을 측정하는데 편리한 방법으로 유형을 세분화한다. 결국 학계, 방송사, 방송규제기구, 방송관련 산업 등은 동일한 프로그램 유형을 상이하게 분류한다.

방송 프로그램 유형은 국가마다 다르게 정의한다. 이것은 방송 프로그램이 한 사회 내에서 문화, 제도, 이념 등과 밀접하게 관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Ofcom은 사실적 프로그램(factual program)에 대한 유형 구분을 다른 국가 규제기구의 구분보다 다양하게 설정한다. Ofcom은 뉴스, 시사, 사회 쟁점(public affairs), 국제뉴스 시사 등 세분화된 분류법을 사용한다. 이것은 영국의 방송문화와 방송이념을 반영한다. 영국의 방송문화 전통에서 보면, '좋은' 프로그램의 기준은 리얼리즘(realism)을 바탕으

1) 이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장르(genre) 개념보다는 유형(type)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장르는 수용자, 제도(산업), 텍스트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Neale, 1980)으로 비평과 미학의 영역에서 사용된다. 반면, 유형은 프로그램의 기능과 관련해서 형식과 내용을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장르 개념이 더 포괄적이고 적절할 수 있지만, 이 연구의 목적은 규제기구의 편성정책과 관련된 것이므로 미학과 산업의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분류하기보다 프로그램이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가를 범주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르 개념보다는 유형 개념이 보다 적합하다.

로 설정되어 왔기 때문이다(Brunsdon, 1990).

프랑스의 시청각최고위원회(CSA: 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에서 특징적인 것은 문화 프로그램의 분류가 구체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프랑스의 공영방송에 대한 의무편성조항에 문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Clement, 2003). 프랑스 방송은 자국의 문화정체성을 지키고, 문화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규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일본의 NHK는 방송 프로그램을 10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버라이어티 쇼는 13개의 세부 분류(코미디, 토크, 게임, 토크와 노래, 요리, 생활정보, 지역, 사건/해프닝, 도전, 인생문제, 인간관찰, 트렌드 정보, 기타)로 나누고 있다. 버라이어티 쇼의 세부 분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분한다. 이것은 NHK 경영위원회의 편성규제에서 오락 프로그램의 비율이 50% 이하(NHK 종합편성채널의 경우)로 편성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으로 추측된다.

미국의 경우, 프로그램 유형 분류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다. FCC의 프로그램 유형 분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다양한 분류기준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다. 미국 방송은 오랫동안 자율규제의 전통 속에서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TV Guide〉 의 분류기준이 구체적인데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분류가 특징적이다. 이것은 시청자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주요 국가들의 프로그램 유형은 미학적, 규범적 차원에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의 국민문화(nation culture), 방송정책, 방송이념 등을 고려해서 범주화된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방송 프로그램은 급속히 변화되어 왔다. 다매체, 다채널로 특징되는 방송통신 융합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 시장에서 지구화(globalisation)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프로그램 포맷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프로그램의 유형 혼종(hybridity) 현상도 확대되고 있다.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와 버라이어티 쇼, 정보와 오락을 함께 담아내는 '정보오락' 혹은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프로그램, 교육과 오락을 혼합한 '교육오락' 혹은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토크 쇼와 버라이어티 쇼, 다큐멘터리와 음악 경연, 음악이나 춤의 경연과 토크쇼 등 다양한 혼종 현상이 확대되면서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들도 부상하고 있다.

국내에서 방송 프로그램 유형분류는 방송위원회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형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안정임 · 송현경 · 전경란, 1993)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방송법 시행령은 보도 10% 이상, 교양 40% 이상, 오락 20% 이상을 규정하고 있었다. 방송사와 방송위원회 사이에서는 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해서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여기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교양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었다. 방송사가 교양으로 분류한 프로그램을 방송위원회는 오락으로 재분류하면서 교양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었다. 당시 방송사가 교양 편성비율 4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형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는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 프로그램의 유형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에서 발표되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형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는 프로그램 유형을 15개(광고 제외) - 뉴스, 다큐멘터리, 대담/토론, 드라마, 코미디, 영화, 만화/인형극, 버라이어티 쇼, 토크쇼, 퀴즈/게임쇼, 스포츠, 생활정보, 학습, 문화예술, 기타(프로그램 안내, 방송사 고지 등) - 로 구분했다. 이 분류는 방송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130명(학계 50명, 방송종사자 60명, 방송관련 유관단체 10명, 방송위원회 10명)의 우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서 제시된 것이었다. 유형분류 기준은 토론회(1993.4.16)와 결과보고(1993.9)를 거쳐서 방송위원회와 중앙방송사장협의회(각 방송사 사장 5인) 사이 프로그램 유형분류 기준을 준수한다는 합의(1993.9.14)도 있었다. 그러나 방송사와 방송위원회 사이 편성비율을 놓고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았다. 당시 방송위원회와 편성실무자 사이 비정기적으로 편성실무협의회가 열리면서 편성비율과 관련된 조정 작업도 진행되었다.[2)]

방송위원회는 2004년 방송평가체계 구축작업으로 프로그램의 품질평가를 위한 사전 연구로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설정 기준'(주창윤, 2004)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변화하는 방송 프로그램 환경에 맞게 새로운 유형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1993년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형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방송종사자 심층토론(9명), 방송종사자 설문조사(460명), 시청자 설문조사(700명)를 실시해서 그동안 방송사와 방송위원회 사이에 논란이 되

2) 방송위원회는 1997년 'TV프로그램 유형분류 기준(단서조항의 활용)을 통해서 조정내용을 정리했다. 방송위원회는 1993년 분류법을 준수하지만, 오락 프로그램의 형식이라도 하더라도 1) 소수 대상의 프로그램(노인, 장애인), 2) 고전과 국악을 중심으로 구성된 음악 프로그램, 3) 교육 목적이 뚜렷한 국산 애니메이션, 4) 교육 목적이 뚜렷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교양으로 분류했다(방송위원회, 1997, 내부자료).

었던 프로그램의 유사성을 측정해서 프로그램 유형을 재분류했다. '텔레비전 장르설정 기준'은 광고를 제외하면 총 16개 유형 - 뉴스, 시사보도,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토론, 교육·문화예술, 어린이, 애니메이션, 드라마, 버라이어티 쇼, 음악쇼, 퀴즈와 게임쇼, 인포테인먼트, 영화, 코미디, 스포츠 - 로 분류했다. 2004년의 유형분류가 1993년의 유형분류와 다른 점은 뉴스와 생활정보 프로그램 사이 유형 혼합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시사보도를 새로운 유형으로 제시했고,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학습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교육·문화예술로 구분했다. 학습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지상파 3사의 경우 거의 없어서 유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토크 쇼를 버라이어티 쇼의 하위 유형으로 포함시켰다.

이 연구는 1993년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형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와 2004년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설정 기준'을 잇는 연속적인 프로그램 유형분류 작업이다. 프로그램 유형분류는 방송법 제69조 3항[3]과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1항[4]에 근거하여 편성비율 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특히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8항은 "방송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0.10.1)고 규정하고 있다. 1993년과 2004년 방송위원회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형분류 기준을 마련했지만,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방송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에 대한 편성고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8항에 의거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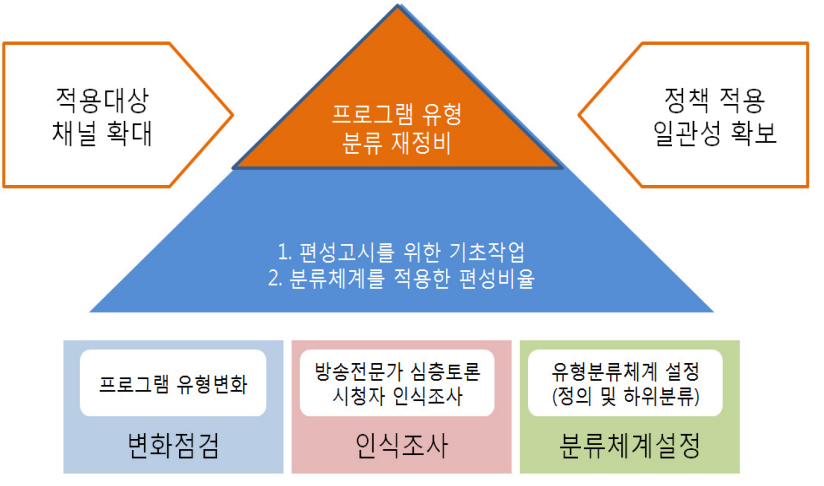
3) 방송법 제69조(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등) ③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 · 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시청시간대(이하 "주시청시간대"라 한다)에는 특정 방송 분야의 프로그램이 편성되어서는 안된다.

4)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등) ①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이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및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할 것. 2. 데이터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위한 기초 작업을 마련하는데 있다.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 유형분류는 지상파 방송채널에 한정되었지만, 이 연구는 분류기준의 적용범위를 지상파 채널 이외 2011년 12월 1일 출범한 4개의 종합편성채널(JTBC, TV조선, 채널A, MBN) 등을 포함해서 변화된 방송환경에 부합하는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프로그램 혼종 현상을 유형분류 기준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과 내용은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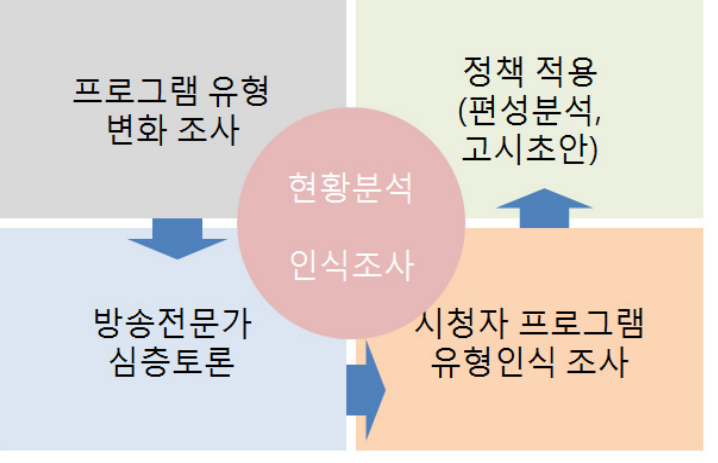
2. 연구과정

이 연구의 과정은 프로그램 유형분류 체계의 도출을 위해서 '현황분석'과 '인식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기존 문헌과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서 도출할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프로그램 유형의 특성을 파악해서 기존 프로그램 유형분류 체계 내에서 포함시킬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를 판단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새롭게 부상하는 프로그램 유형들로 리얼리티 쇼,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 버라이어티 쇼 등의 오락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프로그램 유형 변화를 파악한 이후, 방송전문가(학계와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집단 토론을 통해서 논란이 되는 프로그램 유형을 검토할 것이다. 방송전문가의 심층토론은 2회에 걸쳐 실시될 것이다. 주요 토론 내용은 방송 프로그램 편성규제의 기본 원칙인 보도, 교양, 오락의 삼분류에 대한 의견, 유형 구분이 애매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범주화, 오락 프로그램 최대편성기준 폐지에 대한 논의 등이다.

또 시청자 프로그램 유형 인식조사를 통해서 분류가 모호한 프로그램에 대한 안정적인 분류체계를 제안할 것이다. 시청자 프로그램 유형 인식조사는 24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유사성을 살펴볼 것이다. 최근 혼종 현상이 두드러지거나 논란이 되었던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위대한 탄생>, <나는 가수다>, <K-Pop 스타>, <불후의 명곡> 등), 토론 프로그램(<백지연의 끝장토론>, <시사토크 판> 등), 생활정보 프로그램, 버라이어티 쇼(<1박 2일>, <무한도전> 등)를 중심으로 유사성 조사가 실시될 것이다.

[그림 1-2] 방송 프로그램 유형분류 추진 전략



이 연구는 프로그램 유형변화, 방송 전문가 심층토론, 시청자 프로그램 유형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 프로그램 유형을 재구분하고, 2012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달 동안 지상파 3사와 4개 종합편성채널의 편성분석을 할 것이다.[5)]

5) 새로운 유형분류 체계를 활용한 편성분석 기간을 8월 한 달로 설정한 이유는 2012년

마지막으로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8항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세부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초안)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서는 새롭게 분류된 프로그램 유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와 편성비율을 산정하는 기준, 편성고시(안)을 제안할 것이다. 이 연구진행 과정은 다음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연구진행 과정

①유형 파악	방송 프로그램 유형변화
②심층면접	방송전문가(학계, 현업) 심층면접
③인식조사	시청자 프로그램 유형 인식조사
④유형 분류	최근 경향과 유형 인식 반영한 분류
⑤편성분석	신규 분류체계를 활용한 편성분석
⑥고시(안)제시	편성고시 가이드라인 제시

초에는 KBS와 MBC의 파업으로 정상적인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종합편성 채널의 경우는 초기 불안정한 편성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 편성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제2장 방송 편성규제와 프로그램 유형 기준

제 1 절 방송 편성규제의 삼분류 체계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규제는 보도, 교양, 오락의 삼분류 체계로 규정된다. 보도, 교양, 오락의 편성 규정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방송법 제69조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이다. 방송법 제69조 제3항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 교양,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방송 프로그램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시청시간대에는 특정 방송 분야의 방송 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69조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한다"고 규정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1호에서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및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할 것"으로 규정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2항에서는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과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보도, 교양, 오락의 정의를 보면, 보도의 경우 "취재보도·논평 또는 해설"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의 정의는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교양 프로그램은 국민의 교양 향상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오락 프로그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여가생활을 다양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어떻게 포맷과 내용을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교양 프로그램으로 정의될 수 있다.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모호한 정의는 방송 편성의 삼분류 체계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왔다.

1. 1964년 방송법: 편성규제

보도, 교양, 오락의 삼분류 체계는 1964년 방송법에서 시작되었다. 1964년 방송법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 규제를 제시했다. 편성의 핵심 근거는 방송편성(제2조 제3항 방송순서의 정의, 제11조 방송 순서의 편성)과 방송편성의 자유와 책임(제3조 방송의 자유, 제10조 심의기관)으로 구분된다. 첫째, 방송순서는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과 배열"(제2조)로, 방송순서는 방송 편성을 의미했다. 또한 "방송국은 방송순서를 편성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보도・교양・음악・오락 등을 포함하여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제11조)고 명시하였다. 1973년 개정 방송법에서도 '보도・교양・음악・오락'으로 유지되었으나, 1980년 제정된 언론기본법(제41조)에서는 '교양 또는 교육, 보도 및 오락 내용'이라고 명시되어 교육이 첨가되고 음악은 삭제되었다.

1964년 방송법 시행령(제1634호)은 "방송 사항"으로 보도, 교육, 교양, 오락, 광고, 기타 방송으로 구분하고, 각각 할당 비율의 하한선을 제시하였다. 보도는 10% 이상, 교육 20% 이상, 오락 20% 이상, 그리고 광고 약간, 기타 약간 등이다. 편성 비율에 대한 하한선 규제 방식은 방송 심의와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1964년 방송법 제10조는 방송 편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국 내 5인 이상 외부인사 중심의 심의기관을 둘 것과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하였다(1963년 방송법 제10조). 윤리위원회 조항은 1964년 언론윤리위원회법의 제정으로 삭제되었다.

삼분류에 따른 편성규제는 일본의 삼분류 구분을 따른 것이었다. 현재 일본에서 삼분류에 의한 편성규제는 사라졌지만(NHK만 오락 50% 이하 유지되고 있음), 일본의 편성규제와 편성분류를 참고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맥락에서 보면, 1962년 6월 14일 국내의 모든 방송국 책임자가 모여 방송윤리

위원회를 창립하고, 1963년 1월 '방송윤리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방송 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심의가 시작되었다. 방송윤리위원회는 임의단체였으나 1963년 방송법이 제정됨으로써 법정기관이 되었다. 당시 한일국교정상화로 인한 '6.3 사태'가 벌어지고, 국가재건을 위해서 건전한 방송, 근대화에 복무하는 방송이 주요한 이념으로 작용했다.

1973년 방송법을 개정하면서 폐지된 방송윤리위원회는 다시 신설되었다. 유신 이후 방송에 대한 내용규제가 강화되었고, 국가홍보를 위해서 방송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973년 개정된 방송법은 공・민영 모두 문화공보부가 방송 내용을 통제하도록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방송법에서 문화공보부 장관이 15인 이하 윤리위원을 선임하여 윤리위원회(제4조)를 구성하고, 윤리 규정(제5조)에 의한 심의 결정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편성 사항이 문화공보부가 주관하는 대통령령으로 고시되고 문화공보부가 방송윤리위원회를 관장했다.

2. 2000년 통합방송법: 오락 프로그램 최대편성기준

1964년 방송법의 편성규제는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변화되었다. 2000년 기존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을 폐지하고 지상파와 케이블 텔레비전을 통합하는 새로운 방송법이 제정하면서 방송 영역을 무선에서 유선으로 확대할 뿐 아니라 통신 영역의 영상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전기통신" 영역으로까지 방송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2000년 방송법은 명확하지 않았던 방송 편성, 방송 프로그램, 방송 분야 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규제를 위한 개념 정의에서 "방송 편성이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정하는 것"(제2조 제15항)으로, "방송 프로그램이란 방송 편성의 단위가 되는 내용물"로 규정되었다(제2조 제17항). 방송 분야는 종합편성(제2조 제18항)과 전문편성(제2조 제19항)으로 구분되었다.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 편성규제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는 편성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상한선, 최대편성기준)으로 전환된 것이다.

통합방송법 시행령은 2000년 들어서 2번 개정되었는데, 2001년에는 보도 10% 이상의 규정이 삭제되고, 교양 프로그램 30% 이상과 오락 프로그램 50% 이하의 편성규제만 명시되었다. 이는 한국 방송에서 보도가 항상 10% 넘게 편성되어왔다는 점에서 법익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뉴스는 방송사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프로그램이어서 별도로 보도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규제가 불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50% 이하로 네거티브(상한선) 방식으로 바뀌었다. 2000년 이전 방송법에서는 보도, 교양, 오락의 삼분류를 기준으로 모두 포지티브(하한선)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는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네거티브(상한선)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때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것은 최소편성기준(포지티브 방식, 하한선)과 최대편성기준(네거티브 방식, 상한선)의 설정이었다.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50% 내외였다. 따라서 실질적인 편성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오락 프로그램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방송법의 목적인 공익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방송의 공익성 강화가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최대편성기준(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중요 이유였다. 일본의 NHK가 오락 프로그램의 최대편성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참고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 케이블 방송이 등장하면서 방송환경의 변화로 오락 프로그램들이 급증하면서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규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3. 2004년 방송법: 오락 프로그램 규제

2000년 통합방송법은 제정된 이후 방송 독립의 한계, 방송 규제의 근거 및 논리 미비, 시장경쟁의 조정 기능 미비, 불합리한 소유 규제, 비현실적 편성 및 내용 규제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2004년 개정되었다. 2004년 개정된 방송법에서 편성규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은 교양 30% 이상 편성 비율 규제를 삭제하고, 오락 50% 이하 규제만을 남겨 놓는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보도가 10% 이상 상시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50% 상한선만으로도 사실상 교양의 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다. 오락 프로그램 50%의 상한선 규제는 오락 대 비오락의 이분법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삼분류 체계를 기본으로 보도, 교양, 오락 세 영역의 상호조화를 지향한 것이었다.

2004년 방송법 시행령의 편성 변화는 기존의 편성규제를 크게 바꾼 것은 아니었다(김

수정, 2007). 오히려 교양과 보도의 편성 비율에 융통성을 부여한 장점이 있었으며, 공익성을 위한 균형편성과 최소한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부과한 효과도 있었다.

오락 프로그램 50% 이하라는 규제만을 남겨 놓아, 시청률을 목적으로 상업적 프로그램의 남발 가능성에 대한 분명한 제재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도 지녔다. 상업주의에 대한 견제를 통해 프로그램 균형성 및 시청자 선택권을 최소한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 주요 개정 사유였다.

또 2000년 방송법의 편성규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특히 방송사들은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교양 프로그램 편성비율 30% 이상 조항이 삭제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업화에 대한 견제 기능으로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50% 이하 규제는 유지되었다.

〈표 2-1〉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대한 방송법 시행령의 변천

구분	보도	교양	교육	오락	광고	기타
1963년 제정 방송법 (1963년 제1조)	10% 이상		20% 이상	20% 이상	약간	약간

구분	보도	교양	오락
1973년 개정 방송법 (1973년 제9조)	1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980년 제정 언론기본법 (1981년 제29조)	10% 이상	40% 이상	20% 이상
1987년 제정 방송법 (1988년 제29조)	10% 이상	40% 이상	20% 이상
2000년 제정 방송법 (2000년 제51조)	10% 이상	30% 이상	50% 이하
2000년 시행령 개정 (2001년 제51조)		30% 이상	50% 이하
2004년 개정 방송법 (2004년 제51조)			50% 이하

자료: 김수정, 오락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규제의 쟁점과 프로그램 분류체계의 과제, 2007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규제는 방송이 상업성이나 시청률에 편승하여 오락 프로그램을 편중되게 편성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방송 프로그램 장르 간의 균형성과 다양성을 보호한다는 조치이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의 삼분류 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남윤미 외, 2011; 이원우 외, 2010; 최민재・김수정, 2007; 현대원・노동렬, 2011). 핵심 문제는 삼분류 체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합의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삼분류를 기능적으로 이해할 경우,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조금씩 보도, 교양, 오락의 기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남윤미 등(2011)은 현재 방송 환경 하에서 시청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방송 다양성의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구별하는 외형적 프로그램 다양성보다 의견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편성 정책의 목표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견의 다양성은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사, 보도, 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규제를 의미한다.

또 현재 오락 분야의 과다 편성 금지 규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 프로그램 장르 혼합 현상으로 인해 교양과 오락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으며, 다수의 시청자가 선호하는 오락 분야 프로그램을 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 근거도 미약하다. 건전성(선정성, 폭력성, 가치규범 위반, 인격존중 등)이 문제라면 심의제도로 해결될 수 있다.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의 전제는 세 가지이다. 첫째, 채널 수가 늘어나면서 매체 간, 채널 간 경쟁이 치열해져 시청률 경쟁을 촉발시키면, 시청자에게 인기있는 특정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시청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들을 제공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오락 프로그램은 사회의 건강한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것은 계몽적이고 규범적인 시각에서 시청자를 바라보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오락 프로그램이 증가하면, 시청자들도 건전하고 건강한 사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오락 프로그램의 품질은 떨어진다는 가정이다. 이것은 고급문화의 시각에서 오락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품질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창의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오락 프로그램은 다른 보도나 교양 영역의 프로그램들보다 더 창의적인 포맷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삼분류의 편성규제가 우리 방송에서 기여한 점도 적지 않다. 삼분류는 최소한의 균형성과 다양성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과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 편성 영역에서 그린벨트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그램의 편성규제는 민주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보도 프로그램,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보호, 지역 관련 프로그램 등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현재 방송법에서 보도, 교양, 오락으로 프로그램을 대분류하고, 방송사업자를 규정하는데 있어서도 종합편성과 전문편성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삼분류 체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방송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삼분류 체계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원우 등(2010)은 단기적으로 오락 프로그램의 상한선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월 단위가 아닌 분기 단위로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의 방송법은 월단위로 편성비율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방송사의 정기 편성변화를 고려하면 분기 단위로 편성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월 단위로 편성비율을 산정할 경우, 방송사가 정기 편성을 갑자기 바꾸지 않는 한 매월 편성비율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프로그램 유형 판정위원회를 둘 것도 제안한다. 이것도 타당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유형들 사이에 혼종 현상이 두드러지고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특정 프로그램이 오락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판정위원회는 필요하다.

이원우 등(2010)은 편성비율 대상을 오락과 비오락으로 구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현행 방송법상 구분하고 있는 보도·교양·오락의 삼분류 체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현행 방송법상 종합PP의 경우, 편성비율이 제한되는 것은 오락 프로그램에만 국한된 것이므로 오락 대 비오락의 큰 틀로 변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대분류를 오락 대 비오락이라는 큰 틀로 변환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방송 프로그램이 지니는 공공성이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배제되고, 방송의 사회적 역할을 단순화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방송법의 개정을 통해서 프로그램 삼분류를 폐지하고 다른 방식의

프로그램 규제(어린이 프로그램, 뉴스 프로그램, 지역 프로그램, 사회적 약자보호 등)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방송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는 1차적으로 프로그램 유형분류를 명확히 설정한 후에 유형분류를 통해서 오락 프로그램의 비율을 산정하고,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과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제재를 해야 한다.

제2절 편성규제의 방송이념으로서 공익성

우리나라 방송 정책의 이념적 토대는 공익성으로 설명된다. 공익성의 정책 이념을 논의할 때 고려되어야 할 주요 기본권은 표현의 자유 및 방송의 자유이다. 방송의 자유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21조 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헌법 제21조 1항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의사표현·전파의 자유를 의미하고,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된다. 따라서 방송의 자유는 방송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이재진, 2004, 15쪽). 현행 방송법도 방송 편성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4조 1항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한다", 2항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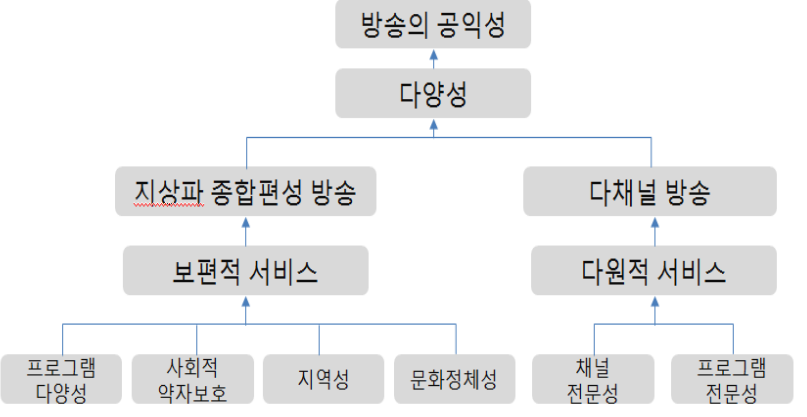
방송 편성은 방송의 공익성을 구체화하는 대상이자 수단이다. 방송 프로그램 편성규제의 이념적 근거는 가장 추상적인 수준에서 방송의 공적 기능이나 공익성에 찾을 수 있다. 방송이 개인이나 개별 방송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복리나 권익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의 공익성은 지상파 방송의 편성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었다(배진아, 2007).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하면, 방송 편성의 자유는 공적 규제가 가능하다. 방송의 공익성과 관련하여 편성의 자유는 일부 제한을 받게 되며, 편성의 자율권과 방송의 공적 역할 또는 공적 목표라는 가치와 대립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성 중에 어떤 가치를 방송 편성 정책의 구체적 목표 또는 기본 가치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남윤미 등(2011)은 방송법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과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근거로 방송편성 정책에서의 목표 또는 핵심 가치가 다양성, 소수자 보호, 지역성, 문화정체성이라고 주장한다([그림 2-1] 참고).

첫째, 의견의 다양성은 방송법 제5조 2항의 민주적 여론 형성, 제6조 1항의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6조 3항의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보호 신장, 제6조 7항의 유익한 생활정보 확산과 보급, 제6조 9항의 다양한 의견에 균등한 기회 제공과 균형적인 편

성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둘째, 소수자 보호는 제5조 5항의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 제6조 5항의 소수이거나 이익추구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 반영 노력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셋째, 지역성과 문화적 정체성은 제6조 6항의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개별 편성 규제는 이러한 네 가지의 가치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2-1] 방송의 공익성 관련 편성정책 핵심 가치



자료: 강형철(2012), 남윤미 외(2011)에서 재구성

이원우 등(2010)은 방송 프로그램 편성규제의 목적은 '시청자의 이익과 권리', 즉 '방송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수용자의 선택권 보장'이라고 주장한다. 현행 방송법 제69조 1항에서는 "방송사업자는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2항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방송 프로그램 편성규제의 내용과 취지는 '다양성 확보 목적의 편성규제'와 '산업정책적 목적의 편성규제'로 다시 구분된다. 다양성 확보 목적의 편성규제는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중앙방송에 대한 지역방송의 종속성 해소를 통한 지역방송의 정체성 확립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 확보 등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된

다.[6] 산업정책적 목적의 편성규제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비롯한 영상산업의 활성화, 독립제작사의 육성 등을 제시한다.[7] 달리 말해, 현행 방송 프로그램 편성규제는 방송의 공익성, 보다 구체적으로는 '방송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수용자의 선택권 보장'에 기반한다.

그러나 방송 프로그램 편성규제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이 제시하는 공정성, 공공성, 다양성, 균형성, 사실성 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는 공공성이라는 상위 개념 아래 공정성, 다양성, 균형성 등이 하부 개념으로 구성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다. 더욱이 사실성이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많은 국가에서도 공익성은 방송 정책 이념으로 채택되었고, 여러 차원에서 다양하게 접근되었다. 다양성은 방송의 공익성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된다. 정책 이념으로서 공익성을 구체화하는 구성요소들은 국가나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다양

---

6) '다양성 확보 목적의 편성 규제'는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오락 프로그램에 관한 편성 규제(방송법 제69조 제3항 전단,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주시청시간대에 관한 편성규제(방송법 제69조 제3항 후단,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주된 방송분야에 관한 편성규제(방송법 제69조 제4항,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부수적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편성규제(방송법 제69조 제5항,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 편성비율 규제(방송법 제69조 제6항,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편성의무(방송법 제69조 제7항, 방송법 시행령 제51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의 편성의무(방송법 제69조 제9항,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 제2항), 방송사업자에 대한 1개 국가 제작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의 편성규제(방송법 제71조 제3항,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등을 통해 설명된다(이원우 외, 2010).

7) '산업정책적 목표의 편성 규제'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규제(방송법 제71조 제1항,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방송사업자에 대한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의 편성규제(방송법 제71조 제2항 본문,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규제(방송법 제71조 제2항 단서,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방송사업자에 대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규제(방송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주시청시간대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방송법 제72조 제3항, 방송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등으로 설명된다(이원우 외, 2010).

성은 방송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공익성 이념이자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방송의 다양성은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와일드먼과 오웬(Wildman & Owen, 1985)은 방송내용의 다양성, 의견과 사고의 다양성, 접근의 다양성으로, 블름러(Blumler, 1991)도 유사하게 프로그램 내 반영되는 의견, 집단, 이슈 등 가치의 다양성, 프로그램 장르의 다양성, 편성의 다양성, 프로그램 문체나 스타일의 다양성, 자원의 다양성, 목표 시청자의 다양성 등을 들고 있다. 맥퀘일(McQuail, 1992)은 미디어 구조, 미디어 내용, 미디어 수용자의 다양성, 나폴리(Napoli, 1999)는 자원의 다양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노출의 다양성으로 구분한다. 국내 연구자들도 유사하게 다양성을 다차원적으로 정의해왔다(박소라, 2003; 이은미, 2001; 이준호, 1998; 조성호, 2000). 제작과 배급 차원의 '공급원의 다양성', 수용 차원의 '접근의 다양성', 프로그램 차원의 '콘텐츠의 다양성' 등이 방송의 다양성을 구성하는 핵심 차원으로 평가된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콘텐츠의 다양성'은 프로그램 유형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장르의 다양성', 소수 관점과 입장을 포함하는 '사상과 가치의 다양성', 소수자 집단을 고려하는 '재현 집단의 다양성' 등으로 세분화되어 설명된다(최민재・김수정, 2006).

다양성의 여러 하위 차원 중에서도 '장르의 다양성'은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김수정, 2007; 최민재・김수정, 2006). 이는 첫째로 장르의 다양성이 수용자들의 시청 선택권을 넓혀 수용자 복리에 기여하는 공익을 구현할 수 있으며, 둘째로 다양성의 실행, 측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며 사회적 동의를 얻기가 쉽고, 셋째로 정보, 오락, 교양에 관한 프로그램들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는 방송 편성의 원칙을 복합적으로 수행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장르의 다양성'은 '개방적 다양성'과 '반영적 다양성' 개념으로 세분화되고 있다(Van der Wurff & Van Cuilenburg, 2001, 최민재・김수정, 2006, 16~18쪽 재인용). 개방적 다양성은 미디어가 객관적이고 사려 깊어야 한다는 커뮤니케이션 규범에 따라 고른 비율로 프로그램의 여러 유형들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며, 반영적 다양성은 수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도로 다양한 프로그램 유형들이 방송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개방적 다양성은 실제 방송 편성에서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측정 및 평가된다. 수평적 차원의 다양성은 흔히 '채널 간 다양성' 개념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특정 시간 단위에 모든 가능한 채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유형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수직적 차원의 다양성은 '채널 내 다양성'을 지칭하는데, 수용자가 개별 채널로부터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유형의 다양성이다(이준호, 1998, 270쪽; 이은미, 2001, 396~397쪽).

방송의 다양성 연구들은 방송 시장의 구조 변화가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이유는 시청자 채널 선택의 다양성이 높아지면서 네트워크 지상파 방송의 편성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사는 채널 내 편성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대하기보다 안정적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정성이 확보된 유형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편성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연구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이준호(1998)는 편성의 다양성 관계를 고찰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시기에는 편성이 높은 다양성을 보이고, 경쟁이 높은 과점적 상태에서는 독점 상태에 비해 낮은 다양성 추세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조성호(2000)는 1990년대 방송사의 프로그램 개편을 조사하면서, 방송사 간의 경쟁이 프로그램 개편의 빈도와 규모를 높여왔고, 개편이 주로 주시청시간대, 그리고 오락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은미(2001)는 시장의 경쟁 상태와 프로그램 다양성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케이블TV가 도입된 1995년 이후 주시청시간대 전체 채널들이 다양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밝히면서, 새로운 채널의 도입과 경쟁이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높여 시청자의 선택폭을 넓히는데 기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박소라(2003)도 경쟁 수준에 따라 다양성이 차이를 보인다는 전제로 주시청시간대와 여타 시간대를 비교분석하여, 텔레비전 장르의 다양성 분석에서 전체 채널의 다양성이 경쟁에 진입하거나, 경쟁이 심한 시간대인 주시청시간대에서 더욱 감소하는 경향을 밝혔다.

요약하면, 방송의 공익성은 시청자 이익의 원리와 다양성을 통해서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방송의 다양성은 ① 제작자원의 다양성, ② 편성의 다양성, ③ 프로그램의 다양성, ④ 시청자의 다양성 등을 의미한다. 방송의 다양성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다양성을 중요한 방송 정책 이념으로 상정되어야 하며, 방송 편성에서도 다양성이 중요 개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제3절 방송 프로그램 유형 분류

1. 국내 방송 프로그램 유형 분류

현재의 편성 규제인 삼분류 체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방송 프로그램 유형 구분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보도, 교양, 오락의 삼분류 체계는 각각의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방송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 프로그램 유형은 방송 산업, 방송 프로그램 텍스트, 시청자 삼자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특정 형식과 내용의 구성물이자 기대와 관습의 체계이다. 과거 보도, 다큐멘터리, 드라마, 버라이어티 쇼, 스포츠 등으로 다양하게 세분류되던 유형은 최근 들어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통 장르(유형)의 파괴와 새로운 혼종 장르(유형)가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다큐멘터리부터 버라이어티 쇼에 걸쳐 여러 수준의 복합 변형의 모습을 지닌 다양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박주연, 2005). 전통적으로 고정된 유형으로 인식되던 시사보도 프로그램 유형의 변화도 있다(최민재, 2005). 객관성과 심층성을 핵심으로 하는 시사보도와 생활정보가 그 내용과 형식에서 상호 침투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시사보도의 '연성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침시간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종합 시사정보'는 생활정보 유형을 기반으로 뉴스, 시사, 생활정보의 경계를 가로지는 프로그램이다.

김정섭과 박주연(2012)은 지상파 방송의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에 대한 포맷 다양성 변화를 연구하면서, 포맷 분류 기준을 15개로 제시한다. 포맷의 대분류로는 픽션 포맷, 논픽션 포맷, 하이브리드 포맷으로 분류된다. 소분류로는 픽션 포맷의 경우 단막극 포맷, 일일극 포맷, 미니시리즈 포맷, 복합 코미디 포맷, 상영・상연극 포맷 등이며, 논픽션 포맷의 경우 뉴스 포맷, 토론・대담 포맷, 생활・정보 포맷, 스페셜(특집) 포맷, 시청자참여 포맷 등이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포맷의 경우, 리얼리티 쇼 포맷, 버라이어티 쇼 포맷, 공연・콘서트 포맷, 게임・퀴즈 포맷, 매거진 쇼 포맷 등이다.

15개의 포맷 기준에서 가장 주목하여야 할 것은 하이브리드 포맷이다. 구체적으로 리얼리티 쇼 포맷은 리얼리티 요소가 뚜렷한 쇼 프로그램 체제, 버라이어티 쇼 포맷은 다

양한 장르, 형식과 요소가 결합된 쇼 프로그램 체제, 공연·콘서트 포맷은 가요, 음악, 뮤지컬 등의 공연 형식의 쇼나 공연 프로그램 체제, 게임·퀴즈 포맷은 내기, 상금, 경쟁의 요소가 특징인 쇼 프로그램 체제, 매거진 쇼 포맷은 정보전달과 오락이 추가된 매거진 형식의 프로그램 체제이다.

하이브리드 포맷은 공통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이 다양하게 혼종되어 진화된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또 기존의 장르 분류 체계에서 논의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램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 변화 특성을 감안할 때, 유형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관습에서의 변화를 어떻게 정리하고 분류해내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형은 학계, 산업(방송사 등), 방송규제기구 등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되었다. 국내 학계는 편성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텔레비전 유형을 구분하였다. 국내 연구자들은 텔레비전 장르를 뉴스, 시사보도, 다큐멘터리, 토론/대담, 생활정보, 문화예술, 교육,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코미디, 스포츠, 영화, 퀴즈/게임 쇼, 만화, 어린이 등의 16개 내외로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를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형 구분은 시사 보도 프로그램, 생활정보 프로그램, 그리고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분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방송규제기구는 방송법이 규정하는 편성규제와 분석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유형을 범주화하고 있다.

〈표 2-2〉 방송위원회 프로그램 유형 분류(2004)

보도	교양	오락
·뉴스(종합뉴스, 지역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스포츠뉴스, 북한뉴스, 국제뉴스, 경제뉴스, 기상뉴스, 비정규편성보도(특별행사중계, 기자회견, 재난방송, 선거방송)	·시사보도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토론 ·교육문화예술 ·어린이 ·애니메이션	·드라마 ·버라이어티 쇼 ·음악 쇼 ·퀴즈/게임 쇼 ·인포테인먼트 ·영화 ·코미디 ·스포츠

방송사와 관련 산업(조사회사나 한국방송광고공사)은 일관된 방식으로 프로그램 유형을 분류하지는 않는다. 방송사는 제작 주체에 따라서 프로그램 장르를 구분하여 방송사

마다 다르게 규정한다. 방송사 홈페이지는 대분류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2004년과 2012년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방송사들은 대체로 뉴스, 시사교양, 오락(예능), 드라마, 어린이 등으로 분류한다. 다만 SBS와 종편방송인 JTBC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방영하지 않기 때문에 SBS는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고 있다(<표 2-3> 참고). 조사회사나 한국방송광고공사는 프로그램 유형을 경제적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분류하고 있는 강점이 있다.

〈표 2-3〉 국내 방송사와 관련 산업 프로그램 유형 분류

지상파			종편	조사회사	KOBACO
KBS	MBC	SBS	JTBC	TNS	대분류
뉴스	뉴스	뉴스	뉴스	보도	보도
시사교양	시사교양	교양정보	교양	정보	정보
연예오락	예능	예능	예능	오락	오락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영화
어린이	어린이	애니메이션		어린이	어린이
				스포츠	스포츠
				교육	교육
				기타	종합
					기타

주창윤(2004)은 방송위원회의 방송평가 체계 구축과정에 포함된 프로그램 품질평가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설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편성규제 조항을 고려하여, 대분류(보도, 교양, 오락), 중분류(프로그램 유형 17개), 소분류(하위 유형 91개)로 구분했다(주창윤, 2004). 이후 진행된 연구들은 프로그램의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보다는 분류체계의 효율성이나 정책적 개선점을 제안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주창윤(2004)의 분류체계를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최민재・김수정, 2006).

2. 외국 방송 프로그램 유형 분류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 분류 기준을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주요 외국의 유형 구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방송 프로그램 편성의 주된 방향은 정보・교양・오락 분야의 적절한 편성을 이루는데 있다. 하지만 유형별 편성 비율에 대한 규정은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외주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규제는 존재한다. 프랑스의 경우, 방송의 공익성 실현을 위해 정보・교육・오락 분야를 구분하지 않으며, 프로그램 유형별 편성 비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자국산 프로그램 편성 쿼터제를 두어, 프랑스어 표현 영상물 40% 이상, EU 제작물 60% 이상 등의 제한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FCC는 어떠한 프로그램 분류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규범을 두지 않고 있다. 주된 취지는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린이 방송시간 광고량을 제한하거나, 어린이 프로그램 규정으로 방송 재허가를 연계하여 방송 재허가 신청 시 주당 3시간 이상 어린이 교육정보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Ofcom(커뮤니케이션법 제264조)은 뉴스, 시사, 교육, 어린이, 학교, 과학, 종교, 사회쟁점, 국제뉴스 시사, 드라마, 코미디・오락, 예술・음악, 영화, 스포츠 등으로 구분한다. 주요 외국의 경우에는 보도, 교양, 오락의 삼분류를 전제로 하는 오락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비율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 편성규제 삼분류 체계의 모델이 된 국가이다. 일본 방송법은 방송 편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법률이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누구에 의해서도 간섭을 받거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지정학적 이유와 지진, 해일에 대비한 비상재해 방송망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로 위성방송의 발전 속도가 가장 빨랐으며, 국민의 정보욕구 충족을 위한 다채널화, 스페이스 케이블 체계의 구축, 그리고 민간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표 2-4〉 외국 방송사와 규제기구 프로그램 유형 분류

방송사			규제기구		
BBC	PBS (대분류)	NHK	Ofcom	FCC	CAS (프랑스)
뉴스	뉴스와 시사	뉴스	뉴스	뉴스	뉴스
사실프로그램	문화와 사회	보도	시사	시사	시사
교육	예술과 오락	다큐멘터리	교육	다큐멘터리	교육
종교와 윤리	건강	이벤트중계	종교	정치	공연예술
드라마	부모	드라마	드라마	교육	드라마
오락		버라이어티	코미디, 오락	오락	오락
음악		대담	예술, 음악	종교	대중음악
코미디		영화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스포츠		강좌	스포츠	스포츠	토크쇼
날씨			영화	농사	토론
			국제뉴스시사	교육기관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사회쟁점	기타	영화
			과학		코미디
			학교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은 방송법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방송 편성기준을 두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 심의위원회를 두고 편성에 관한 전문적인 자율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할 경우 NHK는 회장이, 일반 방송사업자는 사장이 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일본 방송법은 제3조(방송 프로그램 편성의 자유 "교양/교육 프로그램, 보도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상호간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4개 장르별 편성 비율에 대한 규제는 방송법령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방송 표현의 자유와 편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일본의 방송법에서 나타난 프로그램 장르별 편성 제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06조(국내기간 방송 등의 방송 프로그램의 편집) “기간 방송사업자는 텔레비전 방송의 국내 기간방송 및 내외 기간방송(내외방송의 기간방송이라 한다)(이하 국내기간 방송이라 함)의 방송 프로그램의 편집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업계획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양 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보도 프로그램 및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해 방송 프로그램 상호간의 조화를 유지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둘째, 제29조(경영위원회의 권한) 경영위원회는 협회의 경영에 관한 기본방침, 감사위원회의 직무의 집행을 위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협회의 업무 적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다음에 열거한 체제의 정비 등으로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셋째, 편성 현황은 NHK는 경영위원회가 정한 방송 프로그램 편집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각 채널별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매년 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NHK종합채널의 경우, 보도 프로그램 20% 이상, 교육 프로그램 10% 이상, 교양 프로그램 20% 이상, 오락 프로그램 20% 이상을 편성(따라서 오락 프로그램의 비율은 50% 이하로 편성)하도록 규정한다. NHK교육채널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 75% 이상, 교양 프로그램 15% 이상, 보도 프로그램을 약간 편성한다.

제4절 방송 프로그램 유형 혼종현상: 오락 프로그램의 유형 구분

최근 방송 프로그램 유형 혼종 현상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증가이다. 특정 장르가 이렇게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물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증가는 우리나라 텔레비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증가는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작된 <Big Brother>가 70개국 이상에서 자체 제작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영국 iTV의 <Britain's Got Talent>, 미국 CBS의 <Survivor>와 <Bachelor>, FOX의 <American Idol> 등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은 다른 어느 문화 형식보다도 리얼리즘에 기초해 있다. 텔레비전의 리얼리즘은 문학과 예술에서 말하는 총체성이나 전형의 표상이 아니라, 보다 순진한(naive) 의미로 일상성, 친밀성, 즉시성, 자발성, 연속성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일상의 리듬은 텔레비전의 리듬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텔레비전의 감성적 기반이 리얼리티에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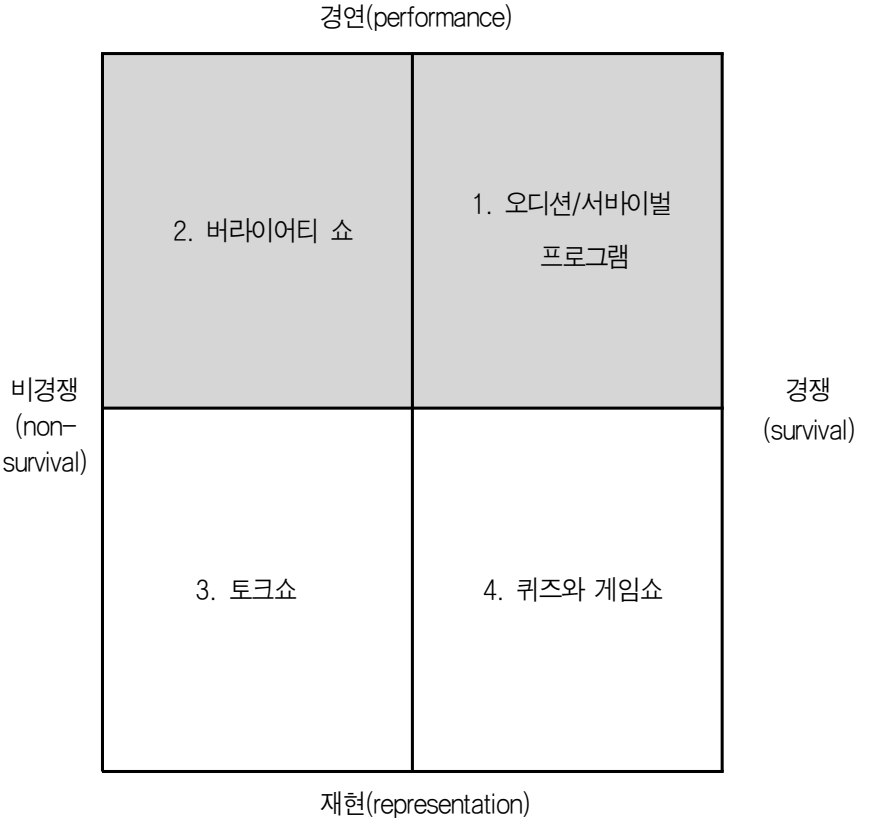
윤태진(2011)은 지난 3년간 우리나라에서 방영된 리얼리티 쇼만 꼽더라도 무려 200편이 넘는다고 지적한다. 비교적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프로그램만 나열해도,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우리 결혼했어요>, <패밀리가 떴다>, <남자의 자격>, <골드미스가 간다>, <삼촌이 생겼어요>, <청춘불패>, <키스 앤 크라이>, <불후의 명곡>, <나는 가수다>, <댄싱 위드 더 스타>(이상 지상파 채널), <오프 더 레코드, 효리>, <소녀시대의 헬로 베이비>, <아이비 백>, <2NE1 TV>, <DOC의 독한 민박>, <기막힌 외출>, <무한걸스>, <아이스 프린세스>, <결혼은 미친 짓이다>, <여자 만세>, <오페라 스타>(이상 케이블 채널) 등이 있었고, 일반인이 출현하는 프로그램으로는 <K-Pop 스타>, <신입사원>, <밴드 서바이벌 TOP 밴드>, <내 딸의 남자>, <기적의 오디션>, <휴먼 서바이벌 도전자>(이상 지상파), <슈퍼스타 K>, <악녀일기>, <신 데릴사위>, <다이어트 워>, <프로젝트 런웨이코리아>, <코리아 갓 탤런트>, <러브 인 몰디브>, <천만원의 꿈>, <익스트림 서바이벌 레이싱 퀸>, <미워도 다시 한번>, <세기의 커플>, <부자의 탄생>(이상 케이블 채널) 등이다. 연예인 출연 프로그램은 대부분 버라이어티 쇼의 성격을 갖거나 서바이벌

요소가 가미된 경연(performance) 프로그램이고, 일반인 참여 프로그램은 상금이나 특전을 내걸고 경쟁하는 오디션 성격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적지 않는 논의들이 진행되었다(김미라, 2008; 김수정, 2010, 2011; 김예란·박주연, 2006; 류웅재·박진우, 2012; 윤태진 2011; 이종수, 2008).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리얼리티 쇼, 서바이벌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 리얼 버라이어티 쇼, 오디션 리얼리티 쇼, 리얼리티 게임쇼 등 다양하게 정의해왔다. 이렇게 다양하게 불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갖는 혼종적 성격 때문이다. 리얼리티 쇼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유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체계적으로 유형을 구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다음 [그림 2-2]는 주요 오락 프로그램을 범주화해서 유형학(typology)으로 구분한 것이다. 주요 오락 프로그램을 두 가지 수준에서 나눌 수 있다. 첫째 수준은 경쟁(survival)과 비경쟁(non-suvival)이고, 둘째 수준은 경연(performance)과 재현(representation)이다. 경쟁과 비경쟁의 구분은 프로그램의 포맷이 출연자를 탈락시키는 포맷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는냐에 따라 구분된다. 최근 오락 프로그램에서 경쟁을 통한 탈락의 포맷은 예전의 오락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예전의 오락 프로그램(예를 들면, <대학가요제>, <전국노래자랑> 등)은 상위자를 시상하는 시스템이었다면, 현재의 오락 프로그램들은 꼴찌를 낙오시키는 시스템으로 변화되었다. 류웅재와 박진우(2012)는 이것을 신자유주의의 경쟁 담론이 프로그램에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한다. 또 다른 수준은 경연과 재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연은 음악, 춤, 다양한 재능의 수준을 보여주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재현은 말의 재현으로 재치, 언변, 고백 등과 관련되어 있다.

[그림 2-2] 주요 오락 프로그램의 범주화



이와 같은 유형학에 의하면, [그림 2-2]의 1사분면과 2사분면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을 리얼리티 쇼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리얼리티 쇼로 정의할 경우, 너무 포괄적이어서 각 프로그램이 갖는 특성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리얼리티 쇼라는 일반적인 유형분류에서 벗어나서 좀 더 구체화된 방식으로 오락 프로그램의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1사분면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유형을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2사분면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버라이어티 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가수다>, <댄싱 위드 더 스타>, <불후의 명곡>, <신입사원> 등은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

램'에 포함되지만, 프로그램 내에서 게임은 하지만 출연자가 도중에 탈락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운동, 춤, 노래의 경연을 보여주는 <1박 2일>, <런닝맨> 등은 버라이어티 쇼로 규정될 수 있다.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은 각각 하위 유형으로 오디션 프로그램과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일반인 중심으로 음악, 춤, 각종 재능의 경연으로 탈락의 포맷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연예인 중심으로 음악, 춤, 각종 재능의 경연으로 탈락의 포맷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오디션 프로그램으로는 <슈퍼스타 K>, <K-Pop 스타>, <신입사원>, <밴드 서바이벌 TOP 밴드> 등이고,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곡>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가 혼합된 경우에는 기타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최근 오락 프로그램의 유형 혼종현상과 더불어 주목받고 있는 프로그램 유형은 시사 토크쇼이다. 특히 2011년 12월 종합편성 채널들이 출범하면서 시사 토크쇼는 종편 채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다. 종편 채널들은 시사 토크쇼를 주요 시간대에 배치하고 있다. TV조선은 개국부터 <최박의 시사토크 판>을 편성하고 있고, <윤여준의 정치 차차차>, <장성민의 시사탱크> 등을 방영했다. 채널A는 <시사토크 쾌도난마>, JTBC는 <신예리 & 강찬호의 직격토크>, MBN은 <정운갑의 집중분석>과 <시사콘서트 정치in>을 편성하고 있다.

시사 토크쇼는 기존 토크쇼 형식에 내용을 정치나 사회문제 중심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토크쇼가 연예인 중심으로 자기고백적인 내용이나 일상생활을 이야기의 소재로 삼았다면, 시사 토크쇼는 정치인이나 교수 등이 출연해서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시사 토크쇼는 기존의 토크쇼와 분명히 구분되며, 대담 프로그램과도 다르다. 시사 토크쇼는 시사 토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뉴스 꼭지들도 포함하고 있다. 아직 시사 토크쇼는 전체 방송에서 편성되기보다는 종합편성 채널 중심으로 방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 유형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시사 정보 내 하위유형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제3장 방송 전문가 심층 집단 토론

제1절 심층 토론 목적

방송 프로그램 세부 분류기준은 방송 감독기관의 편성정책 수립 및 집행, 방송사의 편성목표 수립 및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이자, 방송제작 환경변화와 시청자의 인식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정의되어야 한다. 기존 방송 프로그램 세부 분류기준은 1993년 방송위원회에서 설정된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2004년 제시된 기준을 부분적으로 적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규 매체들이 등장하고 프로그램의 융합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새로운 프로그램 세부 분류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현업 종사자, 시민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집단 토론(Focus Group Discussion)을 통해서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맞는 프로그램 세부 분류기준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심층 집단 토론의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았으며, 토론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은 전문가 및 시청자 대상 설문지에 반영하였다.[8)]

---

8) 심층 집단 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개방형 설문지를 방송현업 종사자,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에게 사전에 전달하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회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절차와 과정은 1차 심층 집단 토론의 경우, 2012년 6월 8일(금) 오후 16:00~18:00까지 닐슨코리아 14층 FGD룸에서 진행되었으며, 토론 방법은 각 질문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이었다. 토론 참석자는 유홍식(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성철(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구위원), 박석철(SBS 전문위원), 이태경(KBS PD), 최민재(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김경환(상지대 언론광고학부 조교수) 등이었다. 2차 심층 집단 토론의 경우, 2012년 6월 21일(목) 오후 16:00~18:00까지, 충정빌딩(케이블TV협회)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토론 방법은 각 질문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이었다. 토론 참석자는 임종수(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상호(방송협회 연구원), 이수영(JTBC팀장), 윤정주(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최세경(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전략팀 팀장), 임성원(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팀장) 등이었다.

· 방송 프로그램 편성 규제의 기본 원칙인 보도, 교양, 오락의 삼분법에 대한 의견
· 장르 구분이 모호한 프로그램들(퀴즈, 인포테인먼트, 어린이, 토론)에 대한 구분
· 오락 프로그램 50% 이하의 편성비율 폐지에 대한 의견

제 2 절 주요 토론내용

1. 보도, 교양, 오락의 삼분법 논의

현행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보도, 교양, 오락의 삼분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우선 첫째, 삼분법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에 대해 논의하였다. 토론에서는 보도, 교양, 오락이라는 삼분법 체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개진되었다. “방송사 또는 제작자 입장에서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과도한 편성 규제가 의미가 없다”, “오락 프로그램 외에 보도 프로그램 등을 확실하게 규제하는 것이 낫다”, ‘장르 혼종 상황에서 기존의 분류 체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책의 실효성이나 취지를 생각한다면 전체 시간대의 몇%로 규제한다는 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오락 프로그램도 TV를 시청하는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이고 사회적 악도 아닌데 비율로 조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등의 삼분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이었다. 달리 말해, 삼분법 체계에서 오락 프로그램 50% 이하라는 편성 규제가 매체 환경이 변화하고 프로그램 장르가 변화하면서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 “방송 제작자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다. 입법 취지는 모르겠지만 추론하자면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과도한 편중을 사회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이 법의 목적으로 생각되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오락 프로그램 50% 이하가 어떤 근거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어떤 프로그램을 오락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러 이견도 있다. 오히려 반대로 보도 프로그램 등을 30% 정도로 규제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오락 프로그램이 아닌 것에 대해 최소 규제를 해서 채널의 건전성 여부를 도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 “방송 전체 프로그램 비율에서 어떤 장르가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를 규제하는 것을 많은 국가에서 하는 것 같지 않다. 시간을 근거로 나누기는 하지만, 보도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어서 제외되었고, 오락이나 교양

프로그램은 장르가 섞여가는 과정에서 보도나 교양 프로그램을 까다롭게 규정하던지 등으로 기존의 분류 체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 현재 KBS1의 경우 보도가 31.8%, 교양 54.7%, 오락 13.5%, KBS2는 보도 11.6%, 교양 48.9%, 오락 39.6%이다. 오락 프로그램 50% 비율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장르 융합이 진전되고 있고,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전문 채널들이 많은 상황에서, 오락 50%가 의미는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지상파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입장에서도 시사, 교양이나 오락이라는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황이다. 차라리 오락 프로그램을 규정하기 보다는 보도, 시사 부분들을 어느 이상만 규제하는 것이 낫다. 예를 들면, 최소 30% 이상으로 해라는 규정이 실질적이지 않은가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규제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애매하다. 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이 나쁘다는 이분법적인 사고인 것 같다. 드라마 중에서도 교양에 가까운 것이 있다. KBS1의 사극이나 오락 프로그램도 공익적인 것들이 있다. 반면에 교양으로 포장된 다큐도 굉장히 선정적인 것이 있다. 이 규제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가 애매한 것 같다. 드라마를 보면 나쁘다는 생각은 시청자를 바보로 보는 것이 아닌가. 시청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기본적으로 편견이 있다. 오락 프로그램도 TV를 시청하는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이고 사회적 악도 아닌데 비율로 조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투자비용이 크기 때문에 방송사 입장에서는 하라고 해도 못한다. 오락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다. 현업에서는 많이 이야기 한다”

"사실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 가장 돈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 보도이고 오락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버라이어티, 예능, 쇼 등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오락 프로그램이 넘치지만, 나중에는 수지타산 부분 때문에 프라임 타임대를 제외하면 오락프로그램을 채우기 힘들다. 종편, 지상파, 전문 채널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오락 프로그램에만 자본을 투입하기 힘들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락 프로그램 50%를 방어 차원에서 놓았다면, 미래의 방송 상황을 주시해서 방송사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관점이다."

이와 달리 삼분법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는 공감할 수 있지만 좀 더 발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락 프로그램만 50% 규제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교양 프로그램만 규제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법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그것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봐야 한다.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익적 목적이 없는가 그런 것들을 부각시켜 필요한 것을 분석해야 한다", "다른 관점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지상파가 공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의 프로그램에 쿼터를 줘서 그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좀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다." 등의 삼분법의 제한점은 공감하지만, 시대가 변화한 상황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논의되었다. 즉 삼분법 체계의 문제점을 공감하면서도 보다 발전적인 관점에서 교양 등의 편성 규제를 통해 새로운 편성 규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관점이었다.

"삼분류 체계가 일본법을 참조로 했다. 일본도 교육과 교양 프로그램은 10% 규제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외국의 흐름은 다양성에 목적을 둔다. 방송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다양성의 부분이 문제가 된다. 과거의 삼분법은 의미가 없다. 지금은 새롭게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등급제가 도입되면서 어린이 프

로그램 규제가 등급제로 해결이 되니까, 소수계층 약자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상태는 삼분법이 있어도 실효성이 없고,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삼분법을 방송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려되었지만, 현재는 수치로 맞추어 실효적인 평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방송사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다른 관점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만드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어린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일주일 몇 시간 편성, 주시청간대는 어떻게 해야 하고, 광고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등의 제도를 통해 지상파가 공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어쨌든 이 규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시청자 입장에서 꼭 해야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이다. 방송사는 오락 프로그램으로 채우면서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다. 요즘 같은 경우는 오락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매거진 프로그램들은 교양으로 분류된다. 그것이 바로 오락프로그램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교양으로 집어넣는 것 같다. 이 규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꼭 해야 하는 프로그램들,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의 프로그램에 쿼터를 줘서 그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좀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다.”

또 삼분법 체계에 대한 상반된 의견과는 달리 지금의 현행 삼분법 체계의 취지를 공감하고 오락 프로그램 50% 이하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완전히 폐기하고 없앤다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랄까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락 50%가 적절한지는 이론적으로 논의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크게 반대한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다” 등의 삼분법 체계가 부정적이거나 발전적으로 개선되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조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현행 오락 프로그램 50% 이하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보도, 교양, 오락의 삼분법을 보면, 60년대와 70년대 편성 지침이 생각이 난다. 2004년 오락 50%라는 규정은 매체 환경이 변했으니까 폐기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등의 고민 끝에 그래도 공공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라 생각한다. 솔직히 요즘 같은 매체 환경에서는 삼분법이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완전히 폐기하고 없앤다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랄까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락 50%가 적절한지는 이론적으로 논의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크게 반대한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둘째, 삼분법 체계에서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양 프로그램과 오락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구분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 "교양이 있는 오락 프로그램이 교양의 함의를 친숙하게 전달할 수 있고, 교양이 섞인 오락 프로그램은 단순한 오락 보다 유용한 삶의 질을 제공하는데 기여한다", "프로그램 형식이 오락을 구분하느냐 전혀 아니다. 편성적 규제 틀은 의문이 생긴다", "출연진을 기준으로 하면 오락 프로그램이 많고, 소재를 얘기하면 교양 프로그램이 많다" 등으로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시청자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교양이냐 오락이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시청자에게 물어보고자 해서 설문 조사를 했다. 결과는 오락 쪽에 가까웠다. 이런 작업에서는 시청자의 의견을 묻는 작업이 필요하다." 등이었다.

"오락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공익성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교양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해서 공익적인 것은 아니다. BBC 경우는 오락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오락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영국 국민들에게 진취적인 생각과 활력을 주는 TV의 휴식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HK도 마찬가지이다. 공영방송 역할을 논의하면서 오락을 어떻게 취급하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을 특정 비율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교양이 있는 오락 프로그램이 교양의 함의를 친숙하게 전달할 수 있고, 교양이 섞인 오락 프로그램은 단순한 오

락 보다 유용한 삶의 질을 제공하는데 기여한다. 이 수치 자체가 장르 발전에 장애가 된다. 기준을 엄밀하게 대면 실험적인 장르를 시도하는 것이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시대 흐름을 맞는 것으로 변화해야 한다."

"시사 보도는 어떤 방송사든 규제하는 것이 넌센스이다. 시사 보도는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오락과 경쟁하는 것은 교양이다. 교양을 정확하게 10%라고 해도 뭐가 교양이라는 정의가 모호하다. 어린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애니메이션이 다 오락이 아니다. 애니메이션도 계도적이고 지식적인 부분이 있다. 교양을 정확히 규정해서 10% 등으로 한다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정의 내리기가 만만치 않다. 저는 생활정보가 그 사이를 왔다갔다한다고 본다. 계륵같은 거라고 생각한다. 50%라도 해놓으면 그 안에서라도 방송사가 맞추려고 하는 것이 있다."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의 구분이 모호해서 프로그램 장르가 발전되지 않기 때문에 편성 규제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수치 자체가 장르 발전에 장애가 된다. 기준을 엄밀하게 대면 실험적인 장르를 시도하는 것이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시대 흐름을 맞는 것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런 애매한 프로그램을 위치시키고, 구분짓고, 혼종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바라보아야 한다. 시대적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낙후성을 보여준다" 등으로 교양과 오락의 구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대체로 동조하고 있었다.

셋째, 프로그램의 기능과 내용 분류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적 분류방식에 대한 의견은 전반적으로 유효성은 인정하지만, 지역, 대상, 소재 등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유형 구분의 경우는 지상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한다고 주장하였다. "프로그램 장르보다 지역, 대상, 소재를 주요 관심사로 한다. 이것이 기능적 분류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 "편성 규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공익성이고, 둘째는 국산 프로그램에 대한 산업적 부분이다. 지상파 방송에서 뭐가 부족한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즉 기능적 분류 체계를 유지하고 이에 대한 발전적인 관점으로 교양 등의 외연을 확대하여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 "영국 Ofcom에서 PSI 평가라는 기준이 있다. 프로그램 장르보다 지역, 대상, 소재를 주요 관심사로 한다. 이것이 기능적 분류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 수도권과 지역, 국내와 국외, 어린이, 소수자, 지역, 여성 등의 소재의 다양한 정도를 고려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

> "편성 규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공익성이고, 둘째는 국산 프로그램에 대한 산업적 부분이다. 지상파 방송에서 뭐가 부족한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 환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꼭 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들어갈 내용은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다."

> "방통위가 규제를 통해 방송사의 행위를 제한해야 하는데, 분류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입장에서 시작된 것이다. 오락 프로그램 50%가 장르의 다양성을 위한 것인가, 다양한 장르를 많이 하게 하기 위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 규제의 목적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야 한다. 단순하게 오락적인 것을 못하게 하려 한 것인지, 다양한 장르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분류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이다."

이와는 달리 기능적 분류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적 분류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기능적 분류와 내용적 분류는 너무 안 맞는다. 다양성으로 보면 내용적 분류로 가야 한다. 다양한 분류 기준에 더 많이 연구해야 할 것이 있고, 더 많이 편성에 기준을 제시할 것들이 많아질 것 같다", "다만 기능적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특별하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기능, 내용, 형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능과 내용은 같은 차원이 아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분류 상에 있어서 생활 정보와 같은 중간 지대에 있는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된다" 등이었다. 달리 말해 지금의 기능적 분류 체계는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의 구분이 모호한 것처럼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내용적 분류로 재검토하는 등의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장르의 기준을 보면, 기능적 분류가 내용적 분류와 맞는 것인가하는 의문이 든다. 기능은 교양과 오락 등인데, 기능적 분류와 내용적 분류는 너무 안 맞는다. 다양성으로 보면 내용적 분류로 가야 한다. 다양한 분류 기준에 더 많이 연구해야 할 것이 있고, 더 많이 편성에 기준을 제시할 것들이 많아질 것 같다. 다만 기능적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특별하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기능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다양한 기능이지 않나. 오락이라는 것도 내가 봐서 교육이 될 수 있다. 기능이라는 분류 자체가 계도적인 입장에서 하는 분류이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정책이나 이념이나 다르게 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내용이라 하면, 그 주제와 소구 대상이 소외 계층이나 지역을 위한 것인지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다양성이라는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 기능, 내용, 형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능과 내용은 같은 차원이 아니다."

"기능적 분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디어의 기능이라는 그런 범주이다. 시사나 사회적 여론 형성, 문화의 사회화는 교양, 기타 오락은 오락이 된다. 그런데 생활정보가 애매모호하다. 이게 오락이 되기도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분류 상에 있어서 생활 정보와 같은 중간 지대에 있는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된다."

2. 유형 분류가 모호한 프로그램 논의

기존의 방송법에서 제시된 프로그램 장르 구분은 현재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모호하게 분류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하였다.

첫째, 오락과 교양 프로그램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퀴즈, 인포테인먼트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 구분에서 문제가 되는 퀴즈 프

로그램이나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 등은 규제 대상에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훨씬 다양한 형태의 혼합된 프로그램이 등장했다…예전의 방송법 삼분법 체계로 세분화해서 규제적 접근을 하면 불필요하다고 본다”, “삼분법의 취지를 고려하자면 오락은 굉장히 협소하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전체 프로그램을 분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등으로 대체로 퀴즈나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

> “예를 들어, ‘이야기쇼 두드림’ 같은 경우는 오락 프로그램을 분류되지만 완전한 교양 프로그램이다. ‘탑밴드’는 교양 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실효성 없는 수치를 위해 구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다. 프로그램 장르 혼종 상황은 시청자와 호응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시청자 복지 차원에서 혼종 장르가 탄생한다. 이런 애매한 프로그램을 위치시키고, 구분 짓고, 혼종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방송 정책에서 혼종 현상이 나타난 것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면, 시대적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낙후성을 보여준다. 프로그램 형식이 오락을 구분하느냐 전혀 아니다. 편성 규제 틀은 의문이 생긴다.”

> “실질적으로는 생활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어디는 생활 정보라고도 한다. 종편이던 지상파이던 생활교양이라는 테두리 안에 보도가 들어가고, 오락이 들어가고 한다. 이게 생활교양이라는 테두리 안에 집어넣어지니까 너무 복잡하다. 한 프로그램으로 분류하는 것도 아니다. 분류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 아이템 구성도 있는 것이다. 영역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으면 프로그램 단위로만 봐야 한다.”

둘째,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어린이 프로그램을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 중에서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락 프로그램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애니메이션은 오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지상파 애니메이션은

오락 프로그램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 "장르 기준으로 봤을 때 쟁점이 되는 것은 애니메이션만 있으니, 애니메이션만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합의가 되면 된다" 등으로 어린이 프로그램은 애니메이션이 주를 이루고 있고, 애니메이션은 교육보다는 오락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오락 프로그램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어린이 프로그램 중에서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 규제가 있기 때문에 교양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사실 애니메이션은 오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사실 EBS 애니메이션은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정한 목적을 가진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즉 교육의 목적이 있는 애니메이션은 교양 프로그램으로 봐야 한다."

"지상파 애니메이션은 오락 프로그램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 문제는 어린이 프로그램인데 대상을 유아로 본다면 교육용이 많을 것이고, 연령대가 높은 경우는 오락 프로그램으로 보는 것이 맞다. 개인적으로는 오락 프로그램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애니메이션은 100%로 오락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용 애니메이션은 이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어린이 프로그램의 쟁점은 하나인 거 같다. 어린이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해당하는 것이 애니메이션이다. 애니메이션 분류를 단순하게 오락만 넣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을 하면 된다. 장르 구분도 아니고 수용자 대상이기 때문이다. 장르 기준으로 봤을 때 쟁점이 되는 것은 애니메이션만 있으니 애니메이션만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합의가 되면, 특별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교육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양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내용에 따라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의 목적이 있는 애니메이션은 교양 프로그램으로 봐야 한다”, “어린이 프로그램의 경우는 형식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애니메이션은 어린이들의 계발에 도움을 주느냐, 단순한 놀이냐, 아니면 지식이냐, 이런 독립적인 연구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었다. 또 어린이 프로그램조차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편성규제 틀이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락 40% 낮추고 10%를 어린이로 제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지금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거의 전무한 형편이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대표적이었다. 즉 어린이 프로그램이 교양이나 오락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애니메이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

> “어린이 프로그램은 모두 교양으로 보아야 한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광고가 붙지 않는다. 어린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규제를 받는다.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것을 살리는 쪽으로 한다면, 어린이 프로그램은 제작을 늘리는 쪽으로 장르가 들어가야 한다.”

> “사실은 보도, 교양, 오락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위치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어린이 드라마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도 있다.”

> “어린이 프로그램의 경우는 형식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전체 세부 분류 기준에도 있고, 어린이 프로그램 안에 내용이나 주제에 따라 새로운 분류 기준이 필요하다. 예전에 EBS가 애니메이션이 많아서 특정 시간대에 60%가 된 적이 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도 다루는 주제가 다르다. 선정적인 애니메이션이 있고, 아닌 애니메이션이 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어린이들의 계발에 도움을 주느냐, 단순한 놀이냐, 아니면 지식이냐, 이런 독립적인 연구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오락이나 드라마가 나빠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지상파나 종편이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적 역할이 무엇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다양한 시청층을 만족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이 필요한 방송, 노인 계층, 다문화 가정에게도 필요한 방송을 해야 한다. 다양한 시청층을 좀 만족시켜줘야 하는 역할을 지상파나 종편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느 한 장르를 편중시켜야 한다는 게 규제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해야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쿼터가 필요하다. 저는 오락 40% 낮추고 10%를 어린이로 제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지금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거의 전무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셋째, 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보도와 교양 프로그램 중에서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에 논의되었다.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목적 자체가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비율은 상관이 없다.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가치를 바라보고 평가해야 한다", "보도라고 평가해야 논쟁에 대한 부분들도 정의할 수 있다" 등으로 형식보다는 내용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프로그램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도 프로그램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토론 프로그램이나 시사 다큐, 매거진 프로그램은 정보를 얻으려고 보지는 않는다. 서로 간의 이견을 듣고 판단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보도로 보아야 한다."

"선거 토론 자체로 보면 교양 프로그램인데, 중계를 하기 때문에 보도 프로그램이 된다. 공직 선거법에서 선거 중계는 보도이다."

"장르 분류를 하는 목적이 있다. 방송법 규제를 보면 보도 프로그램이 정의되어 있다. 여론 형성은 보도에 있기 때문에 정보가 아니다. 시사토

론 프로그램을 보도에 넣으면서 원래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시사 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교양 프로그램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시사 토론이 보도라고 볼 수는 없다. 보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다”, “시사토론은 상식적으로 보도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변용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도와 교양에서 왔다 갔다 한다”, “프로그램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현상에 맞추어야 한다(중략) 그래서 토론 프로그램은 교양 프로그램으로 분류될 여지가 많다” 등의 보도와 교양으로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프로그램의 변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양 프로그램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시사 토론이 보도라고 볼 수는 없다. 보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다.”

“선거 토론은 명백히 보도 프로그램이다. 법률에 의해 규제 받고 있다. 그러나 시사토론은 상식적으로 보도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변용 가능성이 있다. 시사 토론 프로그램은 굉장히 형식이나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달리 전달될 가능성이 높고, 주제 자체도 변폭이 높다. 형태 자체가 다양하게 변해서 무엇인지를 모르게 만든다. 시사 토론 프로그램은 그럴 여지가 많다. 배심원 시스템 등의 기능적인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정보를 전달하는 보도하고는 성격이 다를 여지가 있다. 그래서 보도와 교양에서 왔다 갔다 한다. 프로그램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현상에 맞추어야 한다. 그래서 시사토론 프로그램은 교양 프로그램으로 분류될 여지가 많다”

3. 오락 프로그램 최대편성기준 폐지 논의

방송법에서 오락 프로그램 50% 이하의 편성비율을 폐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편성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을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전반적으로 오락 프로그

램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것이다… 만약 지상파에서 규제를 폐지하면, 케이블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편성 규제를 할 수가 없다”, “지상파에서 폐지되면 케이블의 입장에서는 지상파에서도 채널 장르 구분을 안 하는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등으로 오락 프로그램 규제가 문제점은 있지만, 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 케이블 PP를 우리처럼 구분하지 않는다. 문제는 유료채널 산업 구조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어느 채널은 보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만약 지상파에서 규제를 폐지하면, 케이블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편성 규제를 할 수가 없다. 물론 그게 맞지만, 사실 이거를 폐지하면 파장은 엄청나다. 케이블 유료채널PP 정책은 다 없어져야 되고 할 일이 없어진다.”

> “법적인 체계상 나눌 수 있겠지만, 지상파에서 폐지되면 케이블의 입장에서는 지상파에서도 채널 장르 구분을 안 하는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예전에도 문제가 되어서 조사했는데, 시청자 단체들은 오락 프로그램 50% 폐지 불가 입장이었다. 오락 프로그램을 전방위로 풀어주었을 때 대부분의 프라임 타임 시간대에 오락으로 깔릴 것이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런 소외 계층의 필요한 프로그램은 거의 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돈이 안되기 때문이다. 적은 돈이 들어가지만 광고가 팔리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게 되었을 때는 시청자 단체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오락 프로그램 50% 이하의 규제를 폐지해도 된다는 상반된 입장도 제시되었다. “처음 시작이 오락의 부정성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얘기했다면, 지금의 매체 환경이 다양해지고, 선택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목적 자체가 다양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오락에 대한 규제는 필요없다고 본다”, “시청자 취향과 정책 취지

를 고려해서 삼분법의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 막고 싶은 오락이 아니라 살리고 싶은 교양을 살리는 것이 낫다고 본다" 등의 오락 프로그램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 "방송법에서 보면 지상파 방송과 방송 채널 사업자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 않나 시청자 취향과 정책 취지를 고려해서 삼분법의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 막고 싶은 오락이 아니라 살리고 싶은 교양을 살리는 것이 낫다고 본다."

> "시청자의 수준은 인정해야 한다. 편성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보도, 교양, 오락의 삼분법을 지금까지 유지해야 하는가는 고민이 필요하다. 처음 시작은 오락 프로그램은 부정적인 것이라는 인식이었다. 그러나 오락 프로그램은 부정적이라는 것은 반대이다. 처음 시작이 오락의 부정성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얘기했다면, 지금의 매체 환경이 다양해지고, 선택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목적 자체가 다양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오락에 대한 규제는 필요 없다고 본다."

삼분법 폐지에 대한 상반된 의견들과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규제 목적에 따라 다른 것 같다.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것이 취지인 거 같다. 두 번째 규제의 방식을 바꾼다면, 하나는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등의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 제기나, "법이 일괄 규제이다. 방송법은 종류의 차별성을 두지 않는다" 등의 방송사마다 차별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상파를 보면 타당하지만, 콘텐츠의 공급의 다양성이 그 채널 관점에서 보는 것은 아니다. 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품질의 콘텐츠가 다양하게 되려면, 1차 소스, 즉 가장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지상파가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나오게 해줘야 다른 쪽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규제 목적에 따라 다

른 것 같다.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것이 취지인 거 같다. 두 번째 규제의 방식을 바꾼다면, 하나는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내용이 기능적인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소구를 목적으로 내용 분류가 있을 수 있다.”

“법이 일괄 규제이다. 방송법은 종류의 차별성을 두지 않는다. 지상파와 종편 규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괄 적용된다. 차라리 그럴 것이면 일괄 규제하지 말고, 공영방송 KBS가 가져야 할 무언가를 지정해야 한다. SBS를 민영방송으로서 최소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 역할의 롤을 주어줄 필요가 있다. 일괄 규제가 애매하다. 롤 모델을 만들어서 빗대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다.”

“결국은 50% 이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교양을 규정해서 몇 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인지, 어느 쪽이 방송사 입장에서 좋아할지, 현실적으로 애매모호한 교양인지 오락인지 등으로 혼란스럽기 때문에 해결점은 없다.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의 문제인데, 하나는 기존의 선택이고 새로운 선택인데, 방송사 입장에서는 무엇을 더 좋아할까 문제가 있다. 정통 다큐 20% 이상 제작하라고 하면 그것을 오히려 싫어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런 규제도 다른 한편에서는 장르라든가 포맷이라든가, 국제적 경쟁력을 키우는 규제의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 1차적인 목적은 장르, 형식, 포맷,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채널 간, 채널 내의 내용의 다양성들을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과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는 경쟁의 형식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있다.”

4. 소결

방송 전문가 심층 집단 토론은 특별한 합의점에 도달하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학계, 방송현업, 시민단체 사이에 프로그램 유형 분류기준과 편성규제를 놓고 상이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시민단체 의견은 오락 프로그램의 최대편성기준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좀 더 강력한 편성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방송현업은 오락 프로그램의 최대편성기준이 현재 방송환경에 맞지 않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계의 대다수 의견도 폐지였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유형 혼종 현상으로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의 분류 자체가 모호하고, 오락 프로그램만이 규제되어야 하는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는 폐지하지만, 민주적 여론형성에 중요한 보도 프로그램이나 방송의 공익성과 관련된 다양성, 지역성, 사회적 약자의 보호, 문화정체성 등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편성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방송의 다양성과 관련된 최소편성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방송의 편성규제가 기능 규제(보도, 교양, 오락)로 가기보다는 내용분류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애니메이션과 관련해서 다수의 의견은 교양이나 오락 어느 한 분야로 규정하기보다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에 따라서 교양이나 오락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반면 <백지연의 끝장토론>과 같은 토론 프로그램을 어떻게 대분류로 나누는가와 관련해서는 보도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교양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의 대립이 있었다. 보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토론 프로그램 목적 자체가 사회적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교양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토론 프로그램의 형식이나 다루어지는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토론을 보도 안에 포함시킬 경우 보도의 영역이 넓어져서 보도와 교양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의견이었다.

제4장 시청자 프로그램 유사성 인식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방법

· 조사대상: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326명
· 조사일시: 2012년 8월 21일~31일(10일간)
· 표집방법: 성, 연령을 고려한 임의할당추출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인터넷 설문조사
· 실시업체: 트랜드 MR
· 주요 설문내용
 - 뉴스와 시사정보 프로그램 6개의 상대적 유사도
 - 토론 프로그램 6개의 상대적 유사도
 - 음악 관련 프로그램 6개의 상대적 유사도
 - 버라이어티 쇼/서바이벌 프로그램 6개의 상대적 유사도

2.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전체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각 163명, 연령별로는 20대, 30대가 33.4%, 40대가 108명으로 33.1%로 구성되어 성별, 연령별로 균등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하가 47명으로 14.4%, 대재 및 대졸이 7257명으로 78.8%, 대학원 재학 이상이 22명으로 6.7%를 차지하였다. 직업별로는 취업자 234명으로 71.8%, 주부 및 무직이 41명으로 12.6%, 학생이 51명으로 15.6%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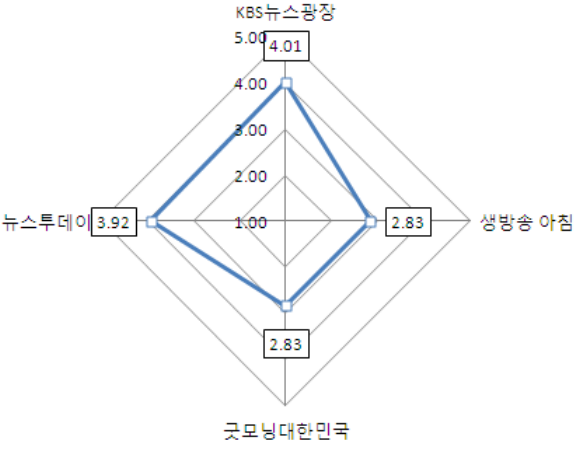
구분	특성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163	50.0
	여성	163	50.0
연령	20대	109	33.4
	30대	109	33.4
	40대	108	33.1
학력	고졸 이하	47	14.4
	대학 졸(재학)	257	78.8
	대학원 졸(재학)	22	6.7
직업	경영/관리직	8	2.5
	사무/기술직	155	47.5
	판매/영업서비스직	12	3.7
	자영업	25	7.7
	기능/작업직	13	4.0
	자유/전문직	19	5.8
	전업주부	26	8.0
	학생	51	15.6
	무직	15	4.6
	기타	2	0.6
합계		326	100.0

제 2 절 조사 결과

1. 뉴스와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유사성 평가

정통 뉴스 프로그램인 <SBS 8뉴스>와 아침 시간대 뉴스 및 생활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들이 얼마나 유사하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SBS 8뉴스>를 기준으로 아침 뉴스 및 생활정보 프로그램인 <KBS 뉴스광장>, MBC <생방송 오늘아침>, KBS2 <굿모닝 대한민국>, MBC <뉴스투데이>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사결과 <KBS 뉴스광장> 과 <뉴스 투데이>는 <SBS 8뉴스>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MBC <생방송 오늘아침>과 KBS2 <굿모닝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림 4-1] <SBS 8뉴스> 상대적 유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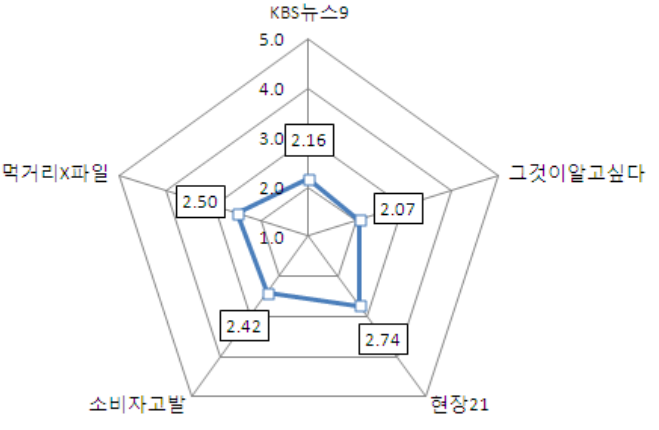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시청자들은 정통 뉴스의 형식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아침 시사정보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뉴스형식이 포함된 <KBS 뉴스광장>과 MBC <뉴스투데이>는 뉴스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뉴스해석과 생활정보를 다루는 MBC <생방송 오늘아침>, KBS2 <굿모닝 대한민국>은 뉴스와 다른 프로그램

으로 인식한다.

저녁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 중 생활정보와 뉴스를 동시에 다루는 KBS2 <생생 정보통>과 사회적 쟁점을 다루는 SBS <현장1>, 그리고 최근 신설된 고발 프로그램 KBS2 <소비자 고발>, 채널A <먹거리X파일>의 보도 프로그램과의 유사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KBS 뉴스 9>와 정통 시사 프로그램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유사성을 비교하였다.

[그림 4-2] <생생정보통> 상대적 유사도



조사결과, <생생 정보통>은 뉴스 프로그램인 <KBS 뉴스9>, 시사정보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와는 상대적 유사도가 낮은 반면, 고발 프로그램인 <소비자 고발>, <먹거리X파일>과는 비교적 높은 유사도를 보였고, 시사적 내용을 비교적 가볍게 다루는 <현장21>과는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침시간대 뉴스 프로그램과 달리 <생생 정보통>은 보도 프로그램이나, 시사정보 프로그램과는 다른 장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사회고발이나 가벼운 시사정보 프로그램과 유사하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인식조사 결과가 함의하는 것은 보도로서 뉴스 프로그램은 단일 유형으로 분류되고, 시사정보 프로그램에는 하위유형으로 심층시사(<그것이 알고 싶다>, <소비자고발>,

<먹거리 X파일>)가 포함되며, 생활정보 프로그램인 <생생정보통>은 뉴스나 시사정보와는 다른 유형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2. 토론 프로그램의 유사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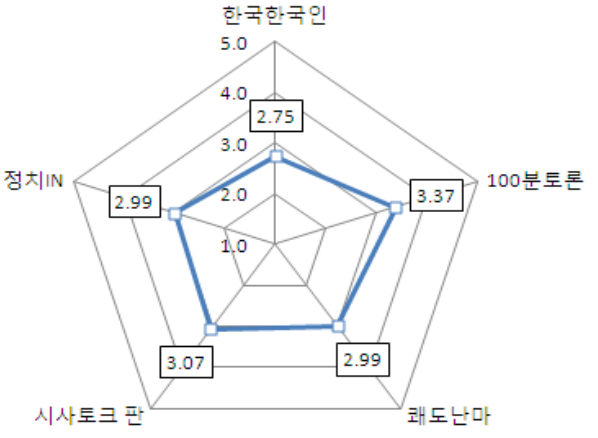
토론 프로그램은 최근 4개의 종합 편성채널이 등장하면서 대담과 토론의 형식이 혼합된 프로그램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 이들을 분류하기 위해 조사하였다. 또한 전문편성채널인 tvN에서 방송되는 <백지연의 끝장토론>은 다수의 토론자가 등장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총선기간 중 국회의원들이 출연하여 정치적 사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백지연의 끝장토론>이 공직선거법이나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한 것인지에 논란이 제기되었다.[9] 따라서 이러한 최근의 변화와 논란을 바탕으로 토론 프로그램들 간의 상대적 유사도를 조사하였다.

토론 프로그램의 유사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과 전형적인 토론 프로그램인 MBC <100분 토론>을 중심으로 대담 프로그램인 KBS1 <한국 한국인>, 종합편성채널의 뉴스와 시사토크가 결합된 프로그램인 채널A <김종진의 쾌도난마>, TV조선 <시사토크 판>, MBN <시사콘서트 정치IN> 간의 상대적 유사도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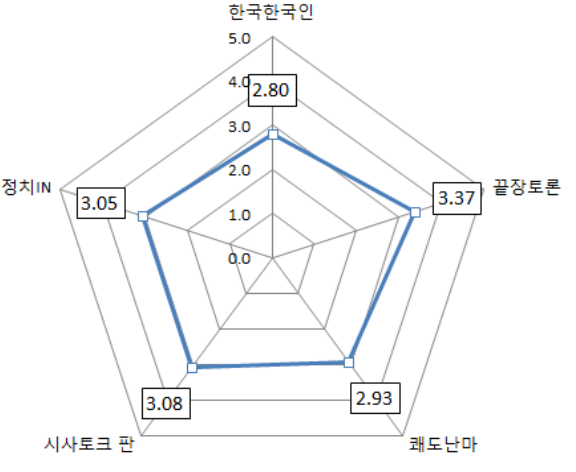
조사결과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은 대담 프로그램인 <한국 한국인>과는 상대적으로 유사도가 낮았고, 종합편성채널의 시사토크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유사도를 보였다. 특히 정통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과 매우 높은 유사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100분 토론>과의 상대적 유사도 조사결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9) 이와 관련된 내용은 7장 결론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그림 4-3] <백지연의 끝장토론> 상대적 유사도



[그림 4-4] <100분 토론> 상대적 유사도



결론적으로 토론의 형식을 취하는 일련의 프로그램 <100분 토론>, <백지연의 끝장토론>, <김종진의 쾌도난마>, <시사토크 판>, <정치IN>은 모두 토론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대담 프로그램인 <한국 한국인>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백지연의 끝장토론>은 <100분 토론>과 같은 유형으로 규정해도 무리가 없다. 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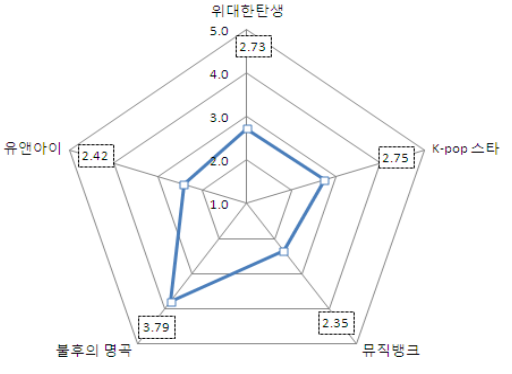
종합편성채널의 <김종진의 쾌도난마>, <시사토크 판>, <시사콘서트 정치IN>의 경우, 주로 정치사회 문제를 주제로 특정인이 초대되어 토론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들 프로그램들은 토론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시사정보 유형 내 시사토크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3. 음악 관련 프로그램의 유사성 평가

최근 프로그램 유형의 혼종현상이 두드러지는 영역은 음악 관련 프로그램들이다. 음악 관련 프로그램들은 <위대한 탄생>, <K-Pop스타> 등의 일반인 대상 오디션 프로그램과 <나는 가수다>와 <불후의 명곡> 등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뮤직뱅크>, <SBS 인기가요>와 같은 가요순위 쇼, <유희열의 스케치북>, <정재형 이효리의 유앤아이>와 같은 토크 음악쇼 등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이들 프로그램 간의 상대적 유사도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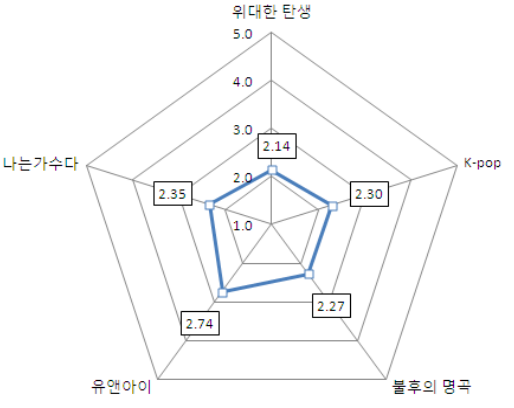
MBC <나는 가수다>에 대한 상대적 유사도를 조사한 결과, 다음 [그림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형적인 가요순위 프로그램인 KBS2 <뮤직뱅크>, 토크 음악 쇼 형식의 SBS <이효리 정재형의 유앤아이>와 상대적 유사도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낮았다. 반면, 기존 가수들이 경연을 벌이는 KBS2 <불후의 명곡>과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였으며,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인 SBS <K-pop 스타>, MBC <위대한 탄생>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유사도를 보였으나 유사도 점수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림 4-5] <나는 가수다> 상대적 유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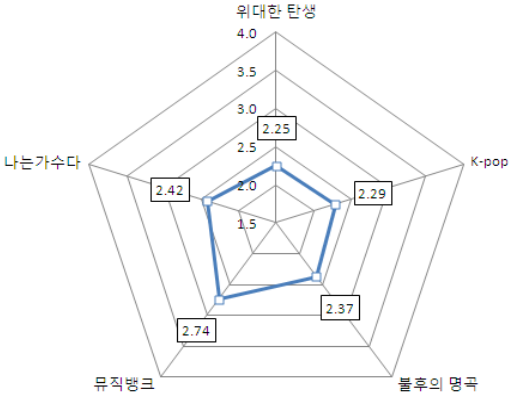


서바이벌/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기존 가요 순위쇼인 KBS2 <뮤직뱅크>와 유사도를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프로그램의 유사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크음악쇼 프로그램인 <이효리 정재형의 유앤아이>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유사도를 보였으나, 유사도 점수가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효리 정재형의 유앤아이>와의 상대적 유사도 비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4-6] <뮤직뱅크> 상대적 유사도



[그림 4-7] <유앤아이> 상대적 유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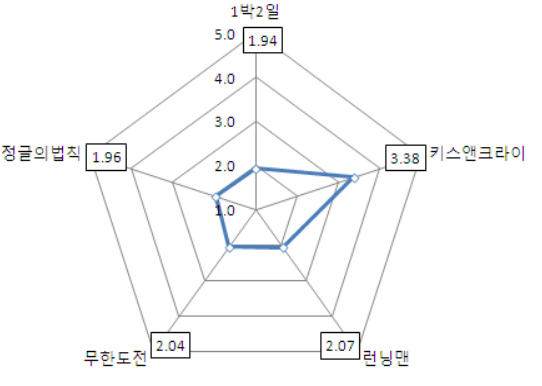


시청자의 유사성 평가가 함축하는 것은 같은 대중음악을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은 기존의 음악 쇼(가요순위 쇼, 토크음악 쇼, 가요 쇼 등)와 다르게 인식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가수가 출연하여 경연하는 프로그램과 일반인이 출연하여 경연하는 프로그램은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방송 프로그램 유형의 변화를 고려해서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은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의 하위유형으로 오디션 프로그램과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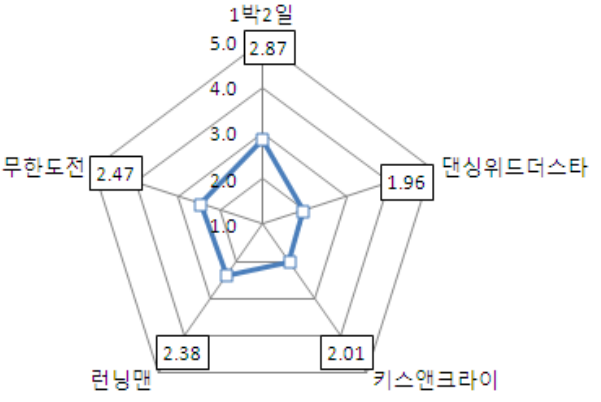
4. 버라이어티 쇼의 유사성 평가

앞서 살펴본 서바이벌/오디션 형식의 프로그램은 버라이어티 장르에서도 다수 발견되었다. 연예인들이 등장하여 피겨 스케이팅 능력을 겨룬 SBS <김연아의 키스 앤 크라이>, 댄스 능력을 겨룬 MBC <댄싱 위드 더 스타>등의 프로그램은 각 분야의 재능을 서바이벌 형식으로 다룬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SBS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은 오지에서의 생존과정을 다뤄 기존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과는 다른 소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소재와 형식의 프로그램이 기존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KBS2 <1박 2일>, MBC <무한도전>, SBS <런닝맨>과 얼마나 유사한지 조사하였다.

[그림 4-8] <댄싱 위드 더 스타> 상대적 유사도



[그림 4-9] <정글의 법칙> 상대적 유사도



연예인이 등장하는 서바이벌 형식 프로그램인 MBC <댄싱 위드 더 스타>의 상대적 유사도 조사결과 [그림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바이벌 형식이 포함된 SBS <김연아의 키스 앤 크라이>와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유사도를 보인 반면, 기존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과의 유사도 평가에서는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한편, SBS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은 <김연아의 키스앤 크라이>와는 상대적 유사도가 낮았지만, 기존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과는 다소 낮은 유사도를 보였으나 <1박 2일>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유사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버라이어티 쇼 유형에서도 서바이벌의 요소가 포함된 신규 프로그램들은 기존 버라이어티 쇼와 다른 장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오지탐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은 기존 버라이어티 쇼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청자의 프로그램 유사성 인식조사결과를 보면, 시청자가 뉴스로서 보도 프로그램, 시사정보, 생활정보 프로그램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토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백지연의 끝장토론>은 <100분 토론>과 유사하게 인식하고, 음악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대중음악을 다루지만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은 별도의 유형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기존의 음악 프로그램인 가요순위 쇼나 토크 음악쇼와는 다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제5장 방송 프로그램 유형 분류 기준

제1절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 기준 변화

이 연구는 최근 방송 환경변화와 프로그램 유형의 변화를 고려해서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을 총 16개로 구분한다.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수는 2004년과 2012년 사이에 차이가 없다. 2004년과 2012년 방송 프로그램 유형분류 기준에서 중요한 차이는 네 가지 영역이다.

〈표 5-1〉 방송 프로그램 유형 기준 변화: 2004년과 2012년(대분류와 중분류)

대분류(삼분법)	2004(중분류)	2012(중분류)
보도	뉴스	뉴스
교양	시사보도	시사정보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생활정보
	토론	토론
	교육·문화예술	교육·문화예술
	어린이	
	인포테인먼트	
오락	드라마	드라마
	버라이어티 쇼	버라이어티 쇼
		오디션/서바이벌
		토크쇼
	코미디	코미디
	영화	영화
	음악쇼	음악쇼
	스포츠	스포츠
	퀴즈와 게임쇼	퀴즈/게임 쇼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첫째, 2012년 방송 프로그램 유형분류는 오락 프로그램을 세분화했다. 2004년 방송위원회 분류에서 오락 프로그램은 8개 유형이었다. 반면 2012년 오락 프로그램의 유형은 10개로 확대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현 방송법 시행령 편성규제가 오락 프로그램의 50%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서 오락 프로그램의 분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오락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유형 혼종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서 방송 프로그램의 진화 과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2004년의 경우, 버라이어티 쇼에는 토크 쇼가 하위유형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2012년에는 토크쇼를 중분류 유형으로 분리했고,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가했다. 왜냐하면 지난 몇 해 동안 가장 부상한 유형은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고, 토크쇼는 편성비율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2004년 교양 프로그램의 유형수는 7개였지만, 2012년에는 5개로 축소했다. 2004년 전후 유행했던 프로그램 유형은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이 중분류 유형으로 분리하기에는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수가 너무 적었다. 따라서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은 중분류로 구분하지 않고 생활정보 프로그램의 하위유형에 포함시켰다.

셋째, 2004년에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중분류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2012년에는 어린이 프로그램이라는 별도의 중분류 유형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프로그램 유형 분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을 통한 분류가 아니라 시청대상을 통한 분류이다. EBS를 제외하면 현재 어린이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3% 이내이다. 지상파의 경우, 유아교육 프로그램인 <TV유치원 파니파니>와 <뽀뽀뽀 아이조아>를 제외하면 대부분 애니메이션을 편성하고 있다.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분명한 교육적 목적을 갖고 있어서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하위유형으로 이동했고, 애니메이션은 그대로 중분류 유형으로 구분했다.

넷째, 애니메이션과 퀴즈는 프로그램의 기능과 내용에 따라서 오락 혹은 교양으로 분류한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교육적 목적이 뚜렷하거나 퀴즈쇼에서 <도전 골든벨>이나 <우리말 퀴즈> 등과 같은 교육과 교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교육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하위유형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이 경우 교양으로 구분된다. 이것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2항 "어린이·청소년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교양으로 구분한다는

규정에 따랐다.

이밖에도 2004년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시사정보 프로그램으로 수정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정의할 경우, 대분류 보도 프로그램으로 인식할 소지가 있고, 최근에는 '시사보도의 연성화'(최민재, 2005)로 보도와 정보가 혼합된 프로그램들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2012년의 방송 프로그램 유형 분류기준은 프로그램의 유형 변화와 실제 편성비율을 반영했고, 분류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표 5-2〉 보도·교양·오락 분류체계와 프로그램 유형

삼분법	유형	정의
보도	뉴스	'좁은 의미로' 국내외 사고, 사건, 쟁점, 과정 등과 관련해서 앵커를 중심으로 기자가 사실보도와 의견보도를 제시하는 프로그램과 비정규 편성보도 프로그램(기자회견, 특별행사중계, 재난방송 등)
교양	시사정보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시사에 대한 정보 프로그램을 의미(정통 뉴스 프로그램과 토론 프로그램은 제외)
	다큐멘터리	사실에 입각해서 주제를 심도있게 파고 들면서 보통 야외촬영을 통해서 현실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내는 프로그램
	생활정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지식이나 상식, 시의적절하고 흥미있는 정보와 화제거리를 안내하거나 소개하는 프로그램
	토론	사회적 현상과 과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 교환하면서 문제를 분석, 설명, 평가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공론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교육・문화 예술	유아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정규 교과과정을 다루거나 그에 준하는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 교양 강좌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 전통문화 예술과 현대문화 예술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
오락	드라마	서사(narrative)구조를 지니는 허구적 구성물(fiction)
	버라이어티 쇼	토크 버라이어티 쇼, 토크 쇼, 연예시상식, 등의 오락 쇼 프로그램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	음악, 경쟁, 게임, 토크 등으로 구성되면서 서바이벌(survival)과 퍼포먼스(performance)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리얼리티 쇼
	토크쇼	오락, 인간흥미를 중심으로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프로그램
	음악쇼	대중음악 일반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음악 쇼
	퀴즈/게임쇼	지식이나 재치,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
	코미디	개그맨이나 코미디언의 연기 비중이 높거나 프로그램 전체의 목적이 희극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
	영화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서사가 있는 허구물
	스포츠	모든 종류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스포츠 뉴스와 특정 스포츠의 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제외
	애니메이션	실사영화와 다르게 다양한 제작방식을 통해서 구현되는 장르로 셀 애니메이션, 클레이 애니메이션, 페이퍼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등을 의미

주) 단서조항

1. 〈스포츠〉 프로그램은 오락으로 분류되지만, 올림픽, 월드컵, A-매치 등 국가정체성(nation identity), 국민통합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 편성분석에서 제외하여 산정한다('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1조(편성비율 및 산정제외 방송시간).

2. 애니메이션과 퀴즈의 경우, 시청대상과 교육목적을 고려해서 교육문화 예술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이나 소수자(장애인, 새터민 등)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형식이 버라이어티 쇼로 구성되더라도 사회통합이라는 방송의 역할을 고려해서 생활정보 프로그램으로 분류한다.

제 2 절 보도 프로그램

1. 뉴스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2항은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 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보도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규정이다.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이라는 것은 보도의 내용이고 "취재보도, 논평 또는 해설"은 보도의 형식에 관한 규정이다. 보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석하는가, 형식을 중심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 보도의 범위는 달라진다. 보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하면 보도의 범위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시사정보,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프로그램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보도의 형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취재보도, 논평 또는 해설"로서 보도와 생중계로 진행되는 비정규편성보도(특별행사중계, 기자회견, 재난방송,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된 프로그램(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경력방송, 개표방송)[10]으로 규정한다. 이것은 통상적인 뉴스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뉴스는 국내외 사건, 사고, 쟁점, 과정 등과 관련해서 앵커를 중심으로 기자가 사실보도(취재보도)와 의견보도(논평 또는 해설)를 의미하기 때문이고, 비정규편성보도의 경우는 특별행사중계, 기자회견, 재난방송은 사실보도로 파악한다. 뉴스는 형식 분류와 내용분류를 함께 적용해서 종합뉴스, 스트레이트 뉴스, 지역뉴스, 스포츠 뉴스, 북한 뉴스, 국제 뉴스, 경제 뉴스, 기상 뉴스, 비정규편성 보도로 분류한다.

---

10) 2004년 유형분류 기준에서는 선거방송을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정책토론회와 선거와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경력방송)과 선거중계방송(개표방송 등)을 뉴스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010년 3월에 개정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조에서 선거방송을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방송 및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념상의 혼동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거방송은 유형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경력방송, 개표방송은 보도로 구분한다.

〈표 5-3〉 뉴스 하위 유형

뉴스		
하위 유형	정의	예
종합 뉴스	사건 보도(단순보도, 심층, 해설을 포함)	<9시 뉴스>, <뉴스데스크>
스트레이트 뉴스	사건 단순보도(20분 이하의 뉴스)	<KBS 뉴스 12>, <5시 뉴스>
지역뉴스	지역 관련 보도 및 해설	<광주 MBC 뉴스>
스포츠 뉴스	스포츠 관련 보도 및 해설	<스포츠뉴스>,<스포츠하이라이트>
북한 뉴스	북한 관련 보도 및 해설	<통일전망대>
국제 뉴스	국제 관련 보도 및 해설	<지구촌 뉴스>
경제 뉴스	경제 관련 보도 및 해설	<뉴스와 생활경제>
기상 뉴스	기상 관련 보도 및 해설	<클릭! 날씨@생활>
비정규 편성보도	특별행사중계, 기자회견, 재난 방송 등	<2012 대선정강정책 연설>
기타	기타 보도 프로그램	

제 3 절 교양 프로그램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2항에 따르면, “교양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과 어린이, 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한다. 교양 프로그램은 ‘교양’과 ‘교육’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교양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범위가 달라진다. 여기서는 교양은 지식(정보), 예술, 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교양 프로그램은 시사정보,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토론,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방송사들의 대분류 기준에서도 시사교양으로 다큐멘터리, 시사정보, 토론 프로그램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시사정보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시사에 대한 정보 프로그램을 의미하는데 뉴스 프로그램과 토론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뉴스는 보도의 영역으로 분류되고, 토론은 교양의 다른 프로그램 유형으로 분리되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는 사실에 입각해서 주제를 심도있게 파고들면서 보통 야외촬영을 통해서 현실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내는 프로그램이다. 생활정보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지식이나 상식, 시의적절하고 흥미있는 정보와 화제 거리를 제공하거나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토론 프로그램은 사회적 쟁점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 형식의 프로그램이면서 여론을 조정하는 공론영역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유아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습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 교양강좌 및 직업교육, 전통문화예술과 현대문화예술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표 5-4〉 교양 프로그램 중분류(유형)

삼분법	유형	정의
교양	시사정보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시사에 대한 정보 프로그램을 의미(정통 뉴스 프로그램과 토론 프로그램은 제외)
	다큐멘터리	사실에 입각해서 주제를 심도있게 파고 들면서 보통 야외촬영을 통해서 현실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내는 프로그램
	생활정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지식이나 상식, 시의적절하고 흥미있는 정보와 화제 거리를 안내하거나 소개하는 프로그램
	토론	사회적 현상과 과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 교환하면서 문제를 분석, 설명, 평가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공론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교육・문화 예술	유아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정규 교과과정을 다루거나 그에 준하는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 교양 강좌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 전통문화 예술과 현대문화 예술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

1. 시사정보

시사정보 프로그램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시사와 관련된 정보 프로그램이다. 최근 뉴스와 다큐멘터리, 뉴스와 생활정보 프로그램 사이 혼합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뉴스와 생활정보를 함께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굿모닝 대한민국>, <생방송 모닝와이드> 등이 있다. 2004년 '텔레비전 장르 설정 기준에 관한 연구'의 조사 결과를 보면, 시청자와 방송종사자들은 이들 프로그램을 뉴스와 다른 프로그램으로 인식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종합 시사정보'로 분류한다.

심층시사 프로그램은 단일 주제에 대한 심층 고발 프로그램인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과 같은 프로그램과 3개 내외의 주제를 대상으로 심층보도를 하는 <취재파일 4321>, <시사 매거진 2580>, <뉴스 추적>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기획보도는 사회고발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기획 프로그램이다. 이밖에도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과 시청자 평가와 참여 프로그램도 시사정

보 프로그램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신문 뉴스를 비평하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과 시청자가 비평하는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은 동일한 하위유형으로 묶을 수 있으나 방송법 제89조에서 별도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분리한다.

〈표 5-5〉 시사정보 하위유형

시사정보		
하위 유형	정의	예
종합 시사정보	뉴스와 생활정보 일반을 함께 다루는 프로그램	<굿모닝 대한민국>, <생방송 모닝와이드>
심층시사	하나나 몇 개의 단일주제에 대한 심층 고발 프로그램	<PD수첩>, <이영돈의 먹거리 X파일>
시사토크쇼	정치 사회문제에 대한 토크 프로그램	<쾌도난마>, <시사토크 판>
시사기획	다양한 내용의 시사 기획 프로그램	<수요기획>, <시사기획 창>
미디어 비평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미디어 비평>
시청자 평가와 참여프로그램	시청자 평가와 참여 프로그램	<TV비평 시청자 데스크>
기타	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2.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는 포괄적인 의미로 뉴스와 시사정보, 스튜디오 밖의 방송을 포함한 텔레비전 논픽션물 전체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뉴스와 시사정보를 제외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주제를 심도있게 파고들면서 보통 야외촬영을 통한 사실적(factual)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소재에 따른 분류와 제작방식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 있지만, 소재를 중심으로 구분한다.

다큐멘터리는 소재 분류를 중심으로 인간, 역사/기행, 자연과 과학, 환경, 교육과 문화, 리얼리티, 종합, 기타로 구분한다. 리얼리티 다큐멘터리는 특정 사건을 묘사하는데

실제 상황을 중심으로 연출을 최소화해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영상기록 병원 24시> 등이 이에 속한다. 자연과 과학 다큐멘터리와 환경 다큐멘터리를 다른 하위유형으로 구분하는데, 환경 문제에 대한 고발과 비판을 담은 프로그램은 환경 다큐멘터리로, 자연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자연과 과학 다큐멘터리로 나눈다.

〈표 5-6〉 다큐멘터리 하위유형

다큐멘터리		
하위 유형	정의	예
인간	인간 관련 사건 재연, 인터뷰, 심층 취재	<인간극장>
역사/기행	역사, 기행 등 관련 다큐멘터리	<문화기행 세계의 유산>
자연과 과학	자연과 과학 관련 다큐멘터리	<동물의 세계>
환경	환경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	<환경 스페셜>
교육과 문화	교육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예술기행>
리얼리티	범죄, 사고 등을 대상으로 재연이나 기록	<119구조대>
종합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일요스페셜>
기타	기타 종합구성 다큐멘터리	<VJ 특공대>

3. 생활정보

생활정보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지식이나 상식, 시의적절하고 흥미있는 정보와 화제 거리를 안내하거나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생활정보 프로그램의 형식은 종합 구성, 집중 탐구, 단순 구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활정보 프로그램은 스튜디오와 야외촬영을 통해서 제작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생활정보 프로그램은 방송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 가정(가사, 육아, 요리 등), 건강, 생활경제, 해외, 문화레저, 문화와 레저, 법률, 체험구성, 자선과 모금, 소수대상, 인포테인먼트, 기타 종합 등이다. 여기서 소수대상 프로그램은 특정 대상 시청자를 고려하는 프로그램인데, 연예오

락 프로그램의 형식을 따르더라도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고려해서 포함시켰다. 여기서 소수대상은 사회 주류와 상호작용에 있어서 고립되어 있거나 거리감을 갖고 있는 집단을 의미하는데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외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에 포함됨으로써 소수대상에서 제외한다.[11)]

〈표 5-7〉 생활정보 하위유형

생활정보		
하위 유형	정의	예
지역	지역 관련 단순 구성 및 집중 탐구	<6시 내 고향>
가정(가사, 요리)	가사, 육아, 요리 관련 단순 구성 및 집중 탐구	<즐거운 요리>
건강	건강 관련 단순 구성 및 집중 탐구	<생방송 TV닥터>
생활경제	생활경제 관련 단순 구성 및 집중 탐구	<오늘의 경제>
해외	해외 소식 관련 단순 구성 및 집중 탐구	
문화레저	문화레저 관련 단순 구성 및 집중 탐구	<금요 컬처 클럽>
법률	법률 관련 단순구성 및 집중 탐구	
자선/모금	자선과 모금 관련 프로그램	
소수대상	노인, 장애인 등 소수대상 프로그램	<언제나 청춘>, <다문화희망 프로젝트>
인포테인먼트	정보와 오락을 함께 담고 있는 프로그램	<비타민>
기타 종합	기타 종합 생활정보 및 매거진 프로그램	<생생정보통>

11) 안정임(2004)은 방송의 소외계층과 관련해서 권력상의 소외계층(여성, 어린이, 소수인종), 관계상의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지역민, 외국인 노동자), 문화상의 소외계층, 도덕규범상의 소외계층(동성애자 등) 등으로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가 바람직하지만, 다른 장르형식과 적지 않게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외계층을 한정했다.

4. 토론

토론 프로그램을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면 토론, 대담, 뉴스 해설, 인터뷰와 각종 토크(talk)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 중에서 공통된 점은 대화 위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토크 프로그램과 토론 프로그램을 구분하지 않고 총칭하여 토크 프로그램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토론 프로그램과 토크 쇼를 구분해서 사용한다. 토론 프로그램은 어떤 형태의 의사결정의 성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토크 쇼와 구분되며, 질문과 응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담이나 논쟁도 가능한 의견교환의 형태를 띤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다(나미수, 2003).

토론 프로그램은 사회적 현상과 과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 교환하면서 문제를 분석, 설명, 평가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공론의 영역을 만들어간다. 토론 프로그램은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분류기준은 형식을 중심으로 토론과 대담으로 구분한다. 토론은 특정 패널 다수 출연자가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면서 여론을 조성하고 수용자들이 합의점을 찾아 문제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며, 대담 프로그램은 사회자가 소수 출연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중심으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표 5-8〉 토론 하위유형

토론		
하위 유형	정의	예
토론	특정 패널 다수 출연자가 주제를 토론	<100분 토론>, <끝장토론>
대담	소수 출연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대담	<세계 지성과의 대담>

5. 교육 · 문화예술

교육 ·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형식, 내용, 기능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구분해서 별도의 중분류로 만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두 가지 장르의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단일 유형으로 설정하고, 하위유형만 구분한다.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6세 이하 유아대상 프로그램으로 <뽀뽀뽀 아이조아>, <TV유치원 파니파니>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다. 교육 일반은 학교 교육이나 일반인 대상의 교양강좌 프로그램이다. 전통문화예술은 전통예술 공연 및 소개, 현대문화예술 프로그램은 현대예술 공연 및 소개 프로그램이다. 이밖에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정보 프로그램도 기타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에 포함시킨다.

〈표 5-9〉 교육 · 문화예술 하위유형

교육 · 문화예술		
하위 유형	정의	예
유아교육	6세 이하의 유아대상 프로그램	<뽀뽀뽀 아이조아>
교육 일반	학교 교육이나 일반인 대상의 교양 강좌	<강연 100°>
전통문화예술	전통예술 공연 및 소개	<국악 한마당>
현대문화예술	현대예술 공연 및 소개	<명작 스캔들>
기타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과 정보를 제시되는 프로그램	<열려라 동요세상>

제4절 오락 프로그램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2항은 “오락에 관한 프로그램이란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오락의 정의를 “국민정서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로 설정하고 있는 이 규정은 매우 모호해서 오락 프로그램의 범주를 설정하는데 유용하지 않다. 국민의 다양한 여가생활, 예를 들면 여행, 취미활동 등은 어떻게 방송 프로그램으로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교양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락은 재미와 감동 등의 요소로 이루어지며, 이성이나 논리 질서보다는 일시적 해방과 자유를 주는 정서적 요인이다(전규찬·박근서, 2003). 재미는 어떤 목표를 정해서 얻는 만족감과 다르며, 인지적 요인보다는 목표성취와 관계없는 과정 속에서 활동 자체를 즐김으로써 느끼는 정서이다(김학진 외, 2007). 물론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정보나 지식을 얻음으로써 얻는 재미에 가깝기 때문에 오락의 재미인 정서적 즐거움과는 다르다. 오락의 정의와 관련되어 합의나 명확한 개념규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방송에서 관습적으로 오락 프로그램으로 정의되는 드라마, 버라이어티 쇼,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 토크 쇼, 음악 쇼, 퀴즈와 게임쇼, 코미디, 스포츠, 애니메이션을 오락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표 5-10〉 오락 프로그램 중분류(유형)

삼분법	유형	정의
오락	드라마	서사(narrative)구조를 지니는 허구적 구성물(fiction)
	바라이어티 쇼	토크 버라이어티 쇼, 연예시상식, 등의 오락 쇼 프로그램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	음악, 경쟁, 게임, 토크 등으로 구성되면서 서바이벌(survival)과 퍼포먼스(performance)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리얼리티 쇼
	토크 쇼	오락, 인간흥미를 중심으로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프로그램
	음악 쇼	대중음악 일반을 다루는 프로그램
	퀴즈와 게임쇼	지식이나 재치,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
	코미디	개그맨이나 코미디언의 연기 비중이 높거나 프로그램 전체의 목적이 희극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
	영화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서사가 있는 허구물
	스포츠	모든 종류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스포츠 뉴스와 특정 스포츠의 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제외
	애니메이션	실사영화와 다르게 다양한 제작방식을 통해서 구현되는 장르로 셀 애니메이션, 클레이 애니메이션, 페이퍼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등을 의미

1. 드라마

텔레비전 드라마는 공통적으로 서사(narrative)구조를 지니는 허구적 구성물(fiction)을 의미한다. 텔레비전 드라마가 역사 드라마처럼 특정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거나, 다큐드라마에서 보듯 특정 사실을 다루고 있다고 해도 자가의 상상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허구적 성격이 강하다. 드라마의 하위유형을 구분하는데 장르관습과 미학, 형식, 제작주체를 함께 고려했다.

멜로드라마는 등장인물이 도덕적으로 양극화(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 사이의 대립)되어 있고, 강렬한 감정의 호소력을 지니며, 여성 등장인물의 지

배력이 높고, 공적 공간보다는 사적 공간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일상성과 가족갈등이 중요한 요소로 취급된다(Brown, 1994; Feuer, 1984, Kilborn, 1992). 홈드라마는 멜로드라마와 유사하게 가정을 이야기의 주요 공간으로 활용되는데 불륜을 다루지 않으며, 등장인물의 선악대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멜로드라마와 다르다. 오명환(1994)은 한국에서 방영되는 홈 드라마의 장르 관습으로 가족의 신뢰와 애정에서 이야기가 전개, 평범한 서민들의 행복 만들기, 등장인물의 동일한 비중, 가족 공동체의 확인, 이야기 중심을 구성하는 대화, 적극적인 여성 등장인물 등을 지적한다.

로맨틱 드라마는 젊은 남녀의 사랑을 주로 다루는 드라마로 사랑하는 남녀에 집중되며 주변인물은 그다지 중요하게 처리되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트렌디 드라마가 로맨틱 드라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역사드라마는 시간과 배경의 구분에 의한 것이므로 어느 시대를 다룬 것을 역사드라마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를 기준으로 두 세대 이전 즉 40~60년 정도의 과거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를 역사드라마로 규정한다. 경찰드라마는 법과 질서, 사회유지를 주제로 범죄와 수사관련 드라마, 무협/액션은 무협이나 액션 중심의 드라마, 학교드라마는 학교를 주요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전원드라마는 농촌이나 어촌 등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막극은 한 회에 이야기가 끝나는 드라마인데 매회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형식을 하위유형 구분의 주요 요소로 설정했으며, 외국 드라마의 경우 주제와 관계없이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드라마이다.

〈표 5-11〉 드라마 하위유형

드라마		
하위 유형	정의	예
멜로드라마	가족 갈등, 불륜, 가족 성장기 등을 다룬 드라마	<사랑아 사랑아>
홈 드라마	가족의 신뢰와 애정에서 전개되는 드라마	<넝쿨 채 굴러온 당신>
로맨틱 드라마	젊은 남녀의 사랑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드라마	<다섯 손가락>
역사드라마	역사적 배경을 소재로 한 드라마	<신의>, <해를 품은 달>
경찰드라마	범죄와 수사관련 드라마	<경찰 특공대>
무협/액션	무협이나 액션 중심의 드라마	
학교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전원	농촌이나 어촌 등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전원일기>
단막극	이야기가 한 회에 끝나는 드라마	<베스트 극장>
외국 드라마	외국에서 제작된 드라마	<CSI 특별수사대>
기타	기타 드라마	

2. 버라이어티 쇼

버라이어티 쇼는 토크, 게임, 음악, 퀴즈 등을 함께 다루면서 3~5개 정도의 꼭지로 구성되는 토크 버라이어티 쇼, 연예계 소식을 전하는 연예정보 쇼, 각종 연예시상식을 중계하는 연예시상식, 시청자 비디오를 중심으로 만든 비디오 모음집, 그리고 위에 속하지 않는 오락 쇼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표 5-12〉 버라이어티 쇼 하위유형

버라이어티 쇼		
하위 유형	정의	예
토크 버라이어티 쇼	토크, 게임, 음악, 퀴즈 등을 함께 다루는 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
연예정보 쇼	연예계 소식 및 동정	<연예가 중계>
연예시상식	각종 연예 관련 시상식	<대종상 시상식>
비디오 모음집	시청자 비디오를 중심으로 만든 프로그램	
오락 종합	위에 속하지 않는 오락 쇼 프로그램	<와우 동물천하>

3.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은 경쟁(survival)과 경연(performance)을 중심 포맷으로 구성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일반인 중심으로 음악, 춤, 각종 재능의 경연,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연예인 중심으로 음악, 춤, 각종 경연으로 탈락의 포맷으로 구성된다.[12)]

12) 오디션 프로그램과 음악 경연쇼가 다른 이유는 전자는 낮은 점수를 받은 출연자의 탈락포맷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음악이나 재능의 경연뿐만 아니라 연습과정, 사생활 등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음악 경연쇼는 음악경연만 진행되며 탈락의 포맷이 아니라 상위자를 수상하는 포맷이다.

〈표 5-13〉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 하위유형

오디션/서바이벌 프로그램		
하위 유형	정의	예
오디션 프로그램	일반인 중심으로 음악, 춤, 각종 재능의 경연으로 탈락의 포맷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슈퍼스타 K>, <K-Pop 스타>
서바이벌 프로그램	연예인 중심으로 음악, 춤, 각종 재능의 경연으로 탈락의 포맷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기타	퍼포먼스(performance)와 서바이벌(survival)을 중심 포맷으로 구성된 기타 프로그램	<짝>

4. 토크쇼

토크쇼는 생활 주변의 이야기나 화제, 인생담, 인간흥미 거리를 중심으로 재미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토크쇼는 대체적으로 스튜디오에서 제작된다. 토크쇼는 대담이나 토론 프로그램과 형식에서는 유사하나 다루어지는 내용이 인간흥미 거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표 5-14〉 토크 쇼 하위유형

토크 쇼		
하위 유형	정의	예
토크쇼	오락, 인간 흥미를 중심으로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프로그램	<아침마당>, <김승우의 승승장구>
기타	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 토크 쇼	

5. 음악 쇼

대중음악 일반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음악 쇼라고 정의한다. 음악 쇼는 가요 순위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가요 순위 쇼, 대화와 노래를 혼합한 토크 음악 쇼, 가요 중심의 음악 프로그램인 가요 쇼 등으로 구분된다.

〈표 5-15〉 음악 쇼 하위유형

음악 쇼		
하위 유형	정의	예
가요순위 쇼	가요 순위 프로그램	<뮤직뱅크>
토크 음악 쇼	대화와 노래를 혼합한 프로그램	<유희열의 스케치북>
가요 쇼	가요 중심의 음악 프로그램	<열린 음악회>, <콘서트 7080>
기타	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 음악 쇼 (예: 음악 경연쇼)	<대학가요제>

6. 퀴즈와 게임쇼

지식이나 재치,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으로 사회자가 출제한 문제를 푸는 퀴즈 프로그램과 게임 형식의 놀이, 경연 등 기량을 겨루는 게임쇼, 컴퓨터 게임을 중계하는 전자게임쇼 등을 퀴즈와 게임쇼로 정의한다. 퀴즈 쇼의 경우, <도전 골든벨>이나 <우리말 겨루기> 등과 같은 교육과 교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교양으로 분류한다.

〈표 5-16〉 퀴즈와 게임쇼 하위유형

퀴즈와 게임쇼		
하위 유형	정의	예
퀴즈 쇼	지식이나 재치를 겨루는 프로그램	<퀴즈가 좋다>
게임쇼	컴퓨터 게임 및 다양한 게임들로 구성된 프로그램	<게임쇼 즐거운 세상>
기타	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 퀴즈 게임쇼	

7. 코미디

코미디는 꽁트 코미디와 시트콤으로 분류된다. 코미디는 개그맨이나 코미디언의 연기 비중이 높거나 프로그램 전체의 목적이 웃음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코미디는 짧은 코너로 구성된 꽁트 코미디와 현재는 방영되지 않고 있지만 긴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는 코미디가 있다. 시트콤은 드라마 형식을 취하지만 특정 상황(시추에이션)이 웃음을 유발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시트콤에는 가족 시트콤, 로맨틱 시트콤, 성인 시트콤 등이 있다.

〈표 5-17〉 코미디 하위유형

코미디		
하위 유형	정의	예
꽁트 코미디	짧은 코너로 구성된 꽁트 코미디	<개그 콘서트>
시트콤	드라마 형식을 취하는 코미디	<지붕뚫고 하이킥>
기타	위에 속하지 않는 코미디 프로그램	

8. 영화

영화는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허구물이다. 영화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법 제71조와 시행령 제57조, 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서 국내제작과 국외제작으로 하위유형을 구분한다.

〈표 5-18〉 영화 하위유형

영화		
하위 유형	정의	예
국내제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	
국외제작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	

9. 스포츠

모든 종류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스포츠 뉴스와 특정 스포츠의 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제외된다. 스포츠는 아마추어와 프로 경기, 국내 경기와 외국 경기 중계를 중심으로 국내 아마추어, 국내 프로, 외국 아마추어, 외국 프로, 국민적 관심사가 큰 국가대항전, 그리고 바둑, 장기 등을 중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스포츠는 오락으로 구분하지만, <올림픽>, <월드컵> 등 국가대항전 스포츠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법 제70조 2항과 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1조(편성비율 산정 및 산정제외 방송시간) 4항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 또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은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오락 프로그램 산정에서 제외한다.

〈표 5-19〉 스포츠 하위유형

코미디		
하위 유형	정의	예
국가대항전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가를 대표해서 경쟁하는 스포츠 경기 실황중계 및 녹화	<올림픽>, <월드컵> 등
국내 프로 경기	국내 프로 스포츠 경기 실황중계 및 녹화	<프로야구>
국내 아마추어 경기	국내 아마추어 경기 실황중계 및 녹화	<고교야구>
외국 프로 경기	국제 프로 스포츠 경기 실황중계 및 녹화	<LPGA 중계 >
외국 아마추어 경기	국제 아마추어 경기 실황중계 및 녹화	
기타	바둑과 장기 중계	

10.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은 실사영화와 다르게 다양한 제작방식을 통해서 구현되는 유형으로 셀 애니메이션, 클레이 애니메이션, 페이퍼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등을 의미한다. 애니메이션은 영화와 마찬가지로 방송법 제71조와 시행령 제57조, 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

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서 국내제작과 국외제작으로 하위유형을 구분한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유아나 어린이 교육 목적이 분명한 <똑똑! 알록달록 종이마을>이나 <두리둥실 뭉게 공항> 등은 오락이 아니라 교양으로 분류한다.

〈표 5-20〉 애니메이션 하위유형

애니메이션		
하위 유형	정의	예
국내제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똑똑! 알록달록 종이마을>
국외제작	외국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우주소년 아톰>

제6장 프로그램 유형분류에 따른 편성분석

제1절 분석개요

· 조사대상 :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8개
(지상파: KBS1, KBS2, MBC, SBS, 종합편성: 채널A, JTBC, MBN, TV조선)

· 조사기간 : 2012년 8월 1일~31일까지 대상 채널에서 방영된 프로그램 5,895개

· 조사방법 : AGB닐슨미디어리서치의 프로그램 시청률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유형분류체계를 적용하여 프로그램 분류 후 각 프로그램의 방영시간을 통해 비율 산정(각 프로그램은 광고시간을 포함하도록 설정하였고, 토막광고나 SB 등은 분석에서 제외)

· 분석방법 : 보도 · 교양 · 오락의 편성비율(방영시간대 기준)을 산정

· 분석대상 프로그램의 분포

<표 6-1> 분석대상 프로그램의 채널별 분포

	KBS1	KBS2	MBC	SBS	채널A	JTBC	MBN	TV조선	합계
뉴스	318	120	229	212	111	140	333	109	1,577
시사정보	23	53	30	87	233	98	113	249	886
다큐멘터리	167	71	37	42	102	163	149	123	853
생활정보	123	110	60	77	115	120	40	150	802
토론	14		7	4	11	4	1	1	37
교육문화예술	52	65	39	10	19		1		171
드라마	35	99	92	79	27	57		76	465
버라이어티		32	47	44	133	108	131	32	527
오디션/서바이벌	4	7	6	8					25
토크쇼	24	34	13	29	9	27			136
음악쇼	12	10	14	7		1			44
퀴즈게임	2	7	2	3				37	51
코미디		25	19	2		23	12		81
영화	17				9	6	5	25	62
스포츠	16	2	11	15		2		5	51
애니메이션	8	26	16	17	23	7		22	127
총합계	815	661	622	636	792	756	785	829	5,895

제 2 절 편성비율 분석

2012년 8월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 편성분석을 보면, KBS2 오락편성 비율은 50%를 조금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KBS2와 MBC의 경우 상당수의 애니메이션을 교육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교양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들을 오락으로 판단할 경우 오락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표 6-2> 유형분류를 적용한 분야별 편성비율(국민적 관심사 제외)

(단위: %)

구분		KBS1	KBS2	MBC	SBS	채널A	JTBC	MBN	TV조선
보도	뉴스	34.85	9.20	24.55	20.04	11.92	12.65	44.83	11.73
	소계	34.85	9.20	24.55	20.04	11.92	12.65	44.83	11.73
교양	시사정보	3.34	8.97	6.10	15.53	32.46	12.36	13.85	34.16
	다큐멘터리	19.44	8.94	6.39	5.52	12.19	23.05	17.26	15.06
	생활정보	15.32	16.48	10.58	13.13	15.44	16.38	4.13	13.87
	토론	2.90	0.00	2.16	1.47	1.53	0.41	0.13	0.26
	교육문화예술	4.07	5.68	4.79	1.12	2.12	0.00	0.13	0.00
	소계	45.08	40.07	30.02	36.77	63.73	52.20	35.51	63.35
오락	드라마	4.95	20.14	18.38	15.38	3.28	9.26	0.00	8.15
	버라이어티	0.00	8.95	11.85	10.92	17.68	19.46	17.05	4.24
	오디션/서바이벌	0.86	2.04	1.59	2.01	0.00	0.00	0.00	0.00
	토크쇼	4.99	7.90	3.34	7.91	1.28	2.16	0.00	0.00
	음악쇼	2.28	2.95	3.23	1.91	0.00	0.14	0.00	0.00
	퀴즈게임	0.38	1.26	0.54	0.54	0.00	0.00	0.00	5.43
	코미디	0.00	4.41	2.56	0.42	0.00	2.98	1.65	0.00
	영화	3.00	0.00	0.00	0.00	1.08	0.56	0.96	4.19
	스포츠	2.91	0.84	2.81	3.14	0.00	0.44	0.00	1.81
	애니메이션	0.70	2.22	1.58	1.37	1.29	0.43	0.00	1.49
	소계	20.08	50.72	45.88	43.61	24.61	35.43	19.66	25.31

제3절 채널별 프로그램 분류

1. KBS1

KBS1에서 방영된 총 815개의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이중 <광복절 경축식>, <런던올림픽 선수단 귀국환영회>는 특별행사중계로 뉴스로 분류되었으며, <대선 민주통합당 경선후보 토론>은 선거방송으로 분류되며,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구분하여 토론으로 분류되었다. <도전 골든벨>은 퀴즈 프로그램이지만, 대상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목적이 강하므로 교육문화예술로 분류되었다. 한편, <상상친구 꾸메꾸메>는 교육목적의 애니메이션인지 판단이 모호하여 일단 애니메이션으로 분류하였다.

<표 6-3> 유형분류를 적용한 KBS1 프로그램

삼분법	유형	해당 프로그램
보도	뉴스	KBS9시뉴스/ KBS뉴스광장/ KBS뉴스라인/ KBS뉴스12/ KBS뉴스5/ KBS뉴스7/ KBS오늘의경제/ KBS뉴스특보/ 남북의창/ 특파원현장보고/ 런던올림픽선수단귀국환영회/ 광복절경축식/ KBS기상속보/ KBS기상특보
교양	시사정보	미디어비평/ 소비자고발/ 수요기획/ 시사기획/ 취재파일4321/ KBS뉴스옴부즈맨/ TV비평시청자데스크
	다큐멘터리	걸어서세계속으로/ 광복절특집다큐/글로벌다큐/ 글로벌성공시대/ 네트워크특선다큐/ 대한민국을 움직인 사람들 백범김구/ 동물의세계/ 동물의왕국/ 백년의가게/ 생로병사의비밀/ 세상사는이야기/ 슈퍼피쉬인간과물고기의대서사시/ 아름다운사람들/ 공룡의땅/ 지구대비행/ 역사스페셜/ 올림픽결산특집런던이야기/ 런던올림픽특집굿바이런던영웅들의이야기/ 인간극장/ 팔일오특별기획광복군한형석의아리랑/ 한국인의 밥상/ 한국재발견/ 한중수교KBSCCTV공동기획13억의질주/ 한중수교KBSCCTV공동기획13억이본한류/ 현장르포동행/ 환경스페셜/ KBS스페셜/ KBS특선/ TV동화행복한세상
	생활정보	6시내고향/ 걸어서세계속으로/ 교실이야기/ 꿈의기업입사프로젝트스카우트/ 러브인아시아/ 무엇이든물어보세요/ 사람을찾습니다/ 사랑의리퀘스트/ 세상은넓다/ 시청자칼럼우리사는세상/ 여기는여수엑스포현장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93일의기록/ 여수세계박람회폐막식/ 여수엑스포결산특집/ 일자리119/ 즐거운책읽기/ TV쇼진품명품
	토론	생방송심야토론/ 일요진단/ 한국한국인/ 한국현대사증언TV자서전/ 대선민주통합당경선후보토론
	교육문화예술	강연백도씨/ 국악한마당/ 바른말고운말/ 클래식오디세이/ KBS중계석/ TV미술관/ 도전 골든벨/ 우리말겨루기/
오락	드라마	산너머남촌에는2/ 일일연속극(별도달도따줄게)/ KBS걸작선(동안미녀)
	버라이어티쇼	
	오디션/ 서바이벌	전국노래자랑
	토크쇼	아침마당
	음악쇼	가요무대/ 열린음악회/ 열린채널/ 콘서트7080/ 찾아가는음악회
	퀴즈쇼	퀴즈대한민국
	영화	독립영화관/ 명화극장
	코미디	
	스포츠	런던올림픽2012/ 런던올림픽중계석/ 비바K리그/ 스포츠이야기운동화/ KBS바둑제왕전/ KBS스포츠
	애니메이션	상상친구꾸메꾸메/ 피쉬와칩스

2. KBS2

KBS2에서 방송된 661개 프로그램은 다음의 표와 같이 분류되었는데, 올림픽기간 중 이전에 방송되던 <굿모닝 대한민국>이 변경된 <굿모닝 런던>은 이전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시사정보로 분류하였다. 또한 교육목적의 애니메이션 <두리둥실 뭉게공항>, <뛰뛰빵빵 구조대>, <부루와 숲속친구들>, <빠뿌야놀자>, <알록달록 종이마을>, <유후와 친구들>은 애니메이션이지만 교육목적이 강하여 교육문화예술로 분류하였다.

<표 6-4> 유형분류를 적용한 KBS2 프로그램

삼분법	유형	해당 프로그램
보도	뉴스	KBS8아침뉴스타임/ KBS뉴스타임/ KBS일요뉴스타임/ 세계는 지금/ 지구촌뉴스/ 스포츠타임 /스포츠하이라이트
교양	시사정보	굿모닝대한민국/ 추적60분/ 굿모닝런던
	다큐멘터리	걸어서세계속으로/ 다큐3일/ 문화기행세계의유산/ 세상의모든다큐/ 스타인생극장/ 영상앨범산/ 청진기/ 환경스페셜/ VJ특공대
	생활정보	노장불패 /맛있는퀴즈쇼행운의식탁/ 비타민/ 사랑의가족/ 생생정보통/ 세대공감토요일/ 스펀지ZERO/ 싱싱일요일/ 영화가좋다/ 위기탈출넘버원/ 의뢰인K/ GOGO코리아황금발/ 대한민국을응원합니다
	토론	
	교육문화예술	누가누가잘하나/ TV유치원/ 두리둥실뭉게공항/ 뛰뛰빵빵구조대/ 부루와숲속친구들/ 빠뿌야놀자/ 알록달록종이마을/ 유후와친구들
오락	드라마	TV소설(사랑아사랑아)/ 부부클리닉(사랑과전쟁2)/ 서울드라마어워즈수상작(한나의선택)/ 서울드라마어워즈출품작(이중주)/ 해운대연인들/ 넝쿨째굴러온당신/ 각시탈/ 드라마스페셜/ 해외특별기획드라마:삼국지/ 리벤지
	버라이어티쇼	1박2일/ 남자의자격/ 런던올림픽2012승리기원KBS올스타올림픽/서울드라마어워즈/ 연예가중계/ 청춘불패2/ 출발드림팀2/ 해피선데이/ 해피투게더
	오디션/ 서바이벌	불후의명곡/ TOP밴드2
	토크쇼	승승장구/ 안녕하세요/ 여유만만/ 이야기쇼두드림
	음악쇼	뮤직뱅크/ 유희열의스케치북/ 런던올림픽선수단환영국민대축제/ 썸머빅콘서트여름바다젊음/ 아시아송페스티벌/ 통영한산대첩축제KBS음악회
	퀴즈쇼	1대100/ 퀴즈쇼삼총사
	영화	
	코미디	개그콘서트/ 닥치고패밀리
	스포츠	런던올림픽2012여기는런던/ 런던올림픽2012하이라이트/ KBS스포츠
	애니메이션	메타제트/ 쿵푸공룡수호대/ 키오카/ 특집애니메이션/ 프랭키와 친구들

3. MBC

MBC의 622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는데, 선거방송인 <대선 민주통합당 경선후보 토론>은 토론으로 분류되었다. <뽀뽀뽀 아이조아>, <뚝딱 아저씨>, <TV밥상 꾸러기식사교실>는 교육목적의 어린이 프로그램이므로, <엄마와 떠나는 과학여행 엄마는 마법사>는 교육목적의 애니메이션임으로 교육문화예술로 분류하였다.

<표 6-5> 유형분류를 적용한 MBC 프로그램

삼분법	유형	해당 프로그램
보도	뉴스	MBC뉴스/ MBC뉴스24/ MBC뉴스데스크/ MBC뉴스투데이/ 지구촌리포트/ 통일전망대/ MBC뉴스특보/ MBC기상특보/ 광복절경축식
교양	시사정보	생방송 오늘아침/ 시사매거진 2580/ TV속의TV
	다큐멘터리	도시탐험M/ 로드다큐/ 백세건강닥터스/ 시추에이션휴먼다큐그날/ 히스토리후/ MBC건강대기획몸/ MBC네트워크특선/ MBC스페셜/ MBC프라임/ 장애인희망프로젝트 함께사는세상/ 광복절특집다큐팔일오특집다큐/ 한중수교특선다큐/ 창사특집다큐/ 런던올림픽2012특집다큐
	생활정보	경제매거진M/ 고향을부탁해/ 공감특별한세상/ 그린실버고향이좋다/ 금요와이드/ 늘푸른인생/ TV특종놀라운세상/ 다문화희망프로젝트우리는한국인/ 생방송월화수목/ 스포츠매거진/ 자원봉사희망프로젝트나누면행복/ 찾아라 맛있는TV/ 출발비디오여행/ MBC파워매거진
	토론	MBC100분토론/ 여성토론위드/ 민주통합당대선후보경선토론
	교육문화예술	우리가락우리문화/ 문화사색/ 뽀뽀뽀아이조아/ 뚝딱아저씨/ TV밥상꾸러기식사교실/ 엄마와떠나는과학여행엄마는마법사
오락	드라마	무신/ 아랑사또전/ 아랑사또전100배즐기기/ 골든타임/ 그대없인못살아/ 닥터진/ 메이퀸/ 천사의선택/ CSI과학수사대
	버라이어티쇼	무한걸스/ 무한도전/ 반지의제왕/ 세바퀴/ 섹션TV연예통신/ 시추에이션버라이어티무작정패밀리/ 신비한TV서프라이즈/ 언더커버보스회장님은위장취업중리턴즈/ 우리결혼했어요시즌3/ 유재석김원희의놀러와/ 일밤2부/ 일밤스페셜/ 정글러브/ 해피타임/ 황금어장/ MBC플러스특선
	오디션/ 서바이벌	나는가수다2(일밤1부)
	토크쇼	기분좋은날
	음악쇼	쇼!음악중심/ 아름다운콘서트/ 지식나눔콘서트위러브팜/ 코이카의꿈특집콘서트코리아의꿈/ DMZ평화콘서트
	퀴즈쇼	최강연승퀴즈쇼큐
	영화	
	코미디	스탠바이/ 천번째남자
	스포츠	런던올림픽2012/ 런던올림픽2012하이라이트/ MBC스포츠
	애니메이션	창작만화/ 키즈어드벤처여기가어디야

4. SBS

SBS에서 방송된 636개 프로그램은 다음의 표와 같이 분류되었는데, 올림픽기간 중 이전에 방송되던 <모닝와이드>가 변경된 <런던와이드>는 이전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시사정보로 분류하였고, <대선 민주통합당 경선후보 토론>은 선거방송으로 프로그램의 형식에 의해 토론으로 분류되었다. <꾸러기 탐구생활>은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이므로 교육문화예술로 분류하였다.

<표 6-6> 유형분류를 적용한 SBS 프로그램

삼분법	유형	해당 프로그램
보도	뉴스	SBS8뉴스/ SBS나이트라인/ SBS뉴스/ SBS12뉴스/ SBS뉴스속보/ SBS뉴스특보SBS뉴스퍼레이드/ SBS생활경제/ SBS스포츠뉴스/ 날씨와생활/ 광복절경축식
교양	시사정보	그것이알고싶다/ 열린TV시청자세상/ 기자가만나는세상현장21/ 모닝와이드(런던와이드)/ 토요특집(모닝와이드)
	다큐멘터리	감성여행쉼표/ 내마음의크레파스/ 성장다큐/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여행/ 여행의기술/ SBS스페셜/ 일요특선다큐/ 특선다큐/ 런던2012특집/ 팔일오특집다큐/ 한중수교20주년특집
	생활정보	궁금한이야기Y/ 네트워크현장고향이보인다/ 로또복권추첨/ 물은생명이다/ 백세건강스페셜/ 생방송투데이/ 생활의달인/ 순간포착세상에이런일이/ 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 잘먹고잘사는법/ 풋볼매거진골/ SBS컬처클럽
	토론	SBS시사토론/ 대선민주통합당경선후보토론
	교육문화예술	꾸러기탐구생활/ 문화가중계
오락	드라마	아름다운그대에게/ 유령/ 내인생의단비/ 그래도당신/ 맛있는인생/ 다섯손가락/ 신사의품격/ 신의
	버라이어티쇼	놀라운대회스타킹/ 동물농장/ 런닝맨/ 스타부부쇼자기야/ 스타주니어쇼붕어빵/ 일요일이좋다/ 접속무비월드/ 정글의법칙IN시베리아/ 한밤의TV연예/ 힐링캠프기쁘지아니한가
	오디션/ 서바이벌	도전 1000곡/ 짝
	토크쇼	강심장/ 좋은아침/ GOshow
	음악쇼	SBS인기가요/ 정재형이효리의유앤아이/ KPOP슈퍼콘서트in여수엑스포
	퀴즈쇼	브레인마스터스/ 세대공감1억퀴즈쇼
	영화	
	코미디	개그투나잇
	스포츠	런던2012/ 런던2012하이라이트/ 올댓스케이트서머2012/ 프로야구중계석/ SBS골프/ SBS스포츠
	애니메이션	만화왕국/ SBS애니갤러리

5. 채널A

채널A에서 방송된 792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는데, <신문으로 보는 세상>은 신문뉴스를 중심으로 한 뉴스 프로그램으로 판단하여 뉴스로 분류하였고, <대선예비후보 관훈토론회>는 선거방송으로 프로그램의 형식에 의해 토론으로 분류되었다. <이영돈PD의 논리로 풀다>는 형식상 탐사보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시사정보로 분류하였으나 주제에 따라 생활정보로 분류가 가능하였으나 시사정보로 분류하였다.

<표 6-7> 유형분류를 적용한 채널A 프로그램

삼분법	유형	해당 프로그램
보도	뉴스	굿모닝채널A/ 뉴스A/ 채널A뉴스/ 뉴스 특보/ 신문으로보는세상/ 광복절경축식
교양	시사정보	박종진의쾌도난마/ 신석호의통일시계/ 올림픽특집다큐/ 이언경의세상만사/ 이영돈PD논리로풀다/ 이영돈PD의먹거리X파일/ 잠금해제2020/ 채널A시청자마당
	다큐멘터리	관찰카메라24시간/ 광복절특선다큐/ 당신을사랑합니다/ 런던올림픽의 영웅들/ 사진한장속의세계/ 신기한동물나라/ 채널A다큐코리아/ 채널A특선다큐/ 프리미어다큐/ 한중수교특별기획
	생활정보	그여자그남자/ 맛사냥/ 요리비전/ 이산가족감동프로젝트이제만나러갑니다
	토론	대담한인터뷰/ 대선예비후보관훈토론회
	교육문화예술	보이는특강/ 어린이과학교실노바사이언스
오락	드라마	판다양과고슴도치/ 팬암/ 판관포청천2012
	버라이어티쇼	너는내운명/ 박명수의돈의맛/ 불멸의국가대표/ 음치들의반란앙코르/ 이은결김원준TOP매직/ 커튼콜이은결김원준TOP매직/ 특종연예인사이드
	오디션/ 서바이벌	
	토크쇼	글로벌한식토크쇼킹스페셜
	음악쇼	
	퀴즈쇼	
	영화	레드카펫
	코미디	
	스포츠	채널A스포츠런던라이브
	애니메이션	구름빵

6. JTBC

JTBC에서 방송된 756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는데, <JTBC NEWS>, <박성태의 사사건건>, <JTBCNEWS 생생투데이> 등은 형식상 시사정보로 분류가 가능한데, 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일단 보도로 분류하였다. <관훈클럽 주최 대선 예비후보 초청토론회>는 선거방송으로 프로그램의 형식에 의해 토론으로 분류되었다.

<표 6-8> 유형분류를 적용한 JTBC 프로그램

삼분법	유형	해당 프로그램
보도	뉴스	JTBCNEWS10/ JTBCNEWS10태풍특보/ JTBCNEWS뉴스전망대/ JTBCNEWS박성태의사사건건/ JTBCNEWS생생투데이/ JTBCNEWS이브/ JTBCNEWS일요일/ JTBCNEWS전망대/ JTBCNEWS정오의현장/ JTBCNEWS토요일/ JTBCNEWS특보/ JTBC뉴스여기는런던/ 광복절경축식
교양	시사정보	정치판독/ 집중보도대통령의자격/ 탐사코드J/ JTBC시청자의회/ JTBCNEWS스페셜리포트
	다큐멘터리	광복절특집송일국김장훈의청산리역사대장정/ 극한직업/ 김국진의현장박치기/ 나테홍할머니/ 다큐스페셜/ 대한민국을움직인사람들/ 동시다큐2스토리/ 리버오디세이JTBC라오스에가다/ 여름특선명작다큐/ 여름특선참치전쟁2부/ 유교2500년의여행/ 특집금메달을향하여/ 특집다큐/ 특집영광의도전내일은챔피언/ 휴먼다큐/ LIFE다큐/ 런던올림픽결산영웅본색
	생활정보	70억이사는법/ 닥터의승부/ 맘VS맘엄마를바꿔라/ 미각스캔들/ 수시합격대담한선택/엽기과학실험실브레이니악/ JTBC건강콘서트100세의비밀
	토론	박성태의피플앤토크/ 관훈클럽주최대선예비후보초청토론회
	교육문화예술	
오락	드라마	친애하는당신에게/ 유로스페셜여총리비르기트/ 아내의자격/ 해피엔딩/ 인수대비
	버라이어티쇼	감성르포동물원/ 김병만의별난세상/ 두번째로맨스꽃탕/ 소녀시대와위험한소년들/ 신화방송/ 연예특종/ 이수근김병만의상류사회/ 인생병법신의한수
	오디션/ 서바이벌	
	토크쇼	위대한토크혜민스님/ 토크가맛있는요리집수미옥/ 토크본색9회말
	음악쇼	특집월드일렉트로니카카니발
	퀴즈쇼	
	영화	JTBC씨네마
	코미디	청담동살아요
	스포츠	2012PGA챔피언십하이라이트/ JTBC올림픽특집여기는런던
	애니메이션	벤10얼티메이트에일리언

7. MBN

MBN에서 방영된 785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으며, 경제뉴스인 <매일경제>는 뉴스 프로그램으로, <새누리당 대선경선정책토크 청년과 함께>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된 선거방송으로 프로그램의 형식에 의해 토론으로 분류되었다.

<표 6-9> 유형분류를 적용한 MBN 프로그램

삼분법	유형	해당 프로그램
보도	뉴스	굿모닝MBN/ 뉴스1/ 뉴스11부/ 뉴스12부/ 뉴스광장/ 뉴스특보/ 뉴스M/ 매일경제/ MBN뉴스/ MBN뉴스8/ MBN뉴스와이드/ MBN뉴스투데이
교양	시사정보	시사기획맥/ 시사콘서트정치인/ 열린TV열린세상/ 정운갑의집중분석/ 현장르포특종세상
	다큐멘터리	다큐M/ 로드다큐/ 리얼다큐/ 명의/ 소나무/ 아마존의 논물/ 장원준의 해양다큐/ 휴먼다큐/ MBN특집다큐
	생활정보	건강솔루션/ 뽀빠이팔도유람기/ 연금복권520/ 종갓집 보양식/ TheCEO
	토론	새누리당대선경선정책토크청년과함께
	교육문화예술	60분의기적
오락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고수의비법황금알/ 끝장대결/ 마파도/ 뽀빠이팔도유람기/ 소문난며느리/ 여름특집나는자연인이다/ 천기누설천기누설
	오디션/ 서바이벌	
	토크쇼	
	음악쇼	
	퀴즈쇼	
	영화	MBN납량특집TV영화
	코미디	개그공화국
	스포츠	
	애니메이션	

8. TV조선

TV조선에서 방영된 829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으며, 이중 <관훈클럽 주최 대선 예비후보 초청토론회>는 선거방송으로 프로그램의 형식에 의해 토론으로 분류되었고, <런던의 아침>은 올림픽 경기중계가 아니라 스포츠 뉴스 형식으로 판단하여 뉴스로 분류하였다.

<표 6-10> 유형분류를 적용한 TV조선 프로그램

삼분법	유형	해당 프로그램
보도	뉴스	8시뉴스날/ 모닝뉴스깨/ TV조선기상특보/ TV조선뉴스/ TV조선뉴스특보/ TV조선정오뉴스/ 광복절경축식/ 런던의아침
교양	시사정보	강용석의두려운진실/ 뉴스와이드참/ 수상한식탁/ 심야추적당신이잠든사이/ 열린비평TV를말하다/ 장성민의시사탱크/ 최박의시사토크판
	다큐멘터리	겨울차간호얼음호수와어부/ 다큐스페셜/동아시아생명대탐사아무르/ 루트사람사이/ 메가쓰나미/ 빅토리아폭포/ 사나운녀석들/ 사라진낙원아틀란티스/ 살아있는지구/ 세계테마기행/ 세기의연인다이애나/ 아마존기행/ 아시아헌터익스트림/ 아이슬란드화산대폭발/ 역동하는지구/ 오바마와미국의미래/ 오션스/ 지구의신비/ 차마고도/ 해저의비밀/ 현대사의결정적순간/ 휴먼플래닛/ 히로시마/ TV조선스페셜/ UFO비밀문서
	생활정보	영화보기좋은날/ 글로벌인사이트/ 문화짬뽕/ 생생라이프/ 아시아헌터/ 아시아헌터익스트림/ 아시아헌터플러스
	토론	대선예비후보초청관훈토론회
	교육문화예술	
오락	드라마	고봉실아줌마구하기/ 세남자/ 지운수대통/ 프렌즈/ 허슬/ ER/ 베들램빌라의저주/ 엔드게임
	버라이어티쇼	동고동락베스트/ 연예INTV/ 이문세와떠나요비밥바룰라/ 최현우노홍철의매직홀/ 통일실천축제한마당
	오디션/ 서바이벌	
	토크쇼	
	음악쇼	
	퀴즈쇼	라이벌퀴즈쇼반지원정대
	영화	더코브슬픈돌고래의진실/ 토요일앤영화/ TV조선특선영화
	코미디	
	스포츠	특집2012런던올림픽/ TV조선스포츠
	애니메이션	부릉부릉브루미즈/ 뽀롱뽀롱뽀로로

제7장 결론: 도입방안 및 편성고시(안)

제1절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 도입방안과 산정기준

1. 최근 방송 프로그램 유형 분류 논란

최근 방송 프로그램 유형과 관련해서 두 가지 논란이 제기 되었다. 우선, 전문편성 채널인 tvN이 <백지연의 끝장토론>에 총선 출마 예정자들을 출연시킴으로써 문제가 제기되었다. tvN은 2012년 1월 18일 <백지연의 끝장토론>에 총선출마 예정자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를 출연시켰다. 2월 1일 방송에는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과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이 출연하여 일명 '정봉주법'에 대한 찬반토론을 방송했다. 여기서 제기된 논란은 전문편성 채널인 tvN의 <백지연의 끝장토론>이 보도 프로그램인가 교양 프로그램인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즉 tvN이 보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은 공직선거법 제82조 1항(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규정된, 선거기간 중 후보자 및 정당관련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가질 수 있는 언론사의 자격조항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방송을 수행할 수 있는 방송사를 공직선거법 제70조에서 방송시설을 보유한 방송사업자(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지상파 방송사), 종합유선방송국(SO) 및 보도채널)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82조 1항에서는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토론을 할 수 있는 언론사로 제70조에 규정된 방송사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으로 보면 선거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사는 무선국을 보유

한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보도 전문채널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방송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 보다 많은 유권자가 선거관련 정보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송되는 내용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보도기능을 허가 받았는지 법적 규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더욱이 공직선거법 제82조 1항에서는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되는 내용에 대한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로 볼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방송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조에서는 선거방송을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방송 및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정책토론회와 선거와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경력방송)과 선거중계방송(개표방송 등) 이외에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거방송으로 규정하는 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방송의 실시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선거관련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문제이지, 프로그램의 유형분류 체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유형분류 체계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와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경력방송)과 선거중계방송(개표방송 등) 만을 뉴스 프로그램으로 분류하며, 다양한 형식에서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선거관련 내용은 앞서 제시한 프로그램 분류체계에 맞추어 분류할 것을 제안한다.

2. 방송 프로그램 세부 분류기준과 편성비율 산정

방송 프로그램 유형분류와 관련되어 또 다르게 제기된 문제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편채널들의 방송편성을 분석했는데, 채널A의 경우,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55.8%였다는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채널A가 방

송법 제69조 3항과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1항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이하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분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세부 분석기준이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채널A가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초과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문제는 그동안 방송 프로그램 세부 분류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고, 특정 프로그램이 오락에 속하는지 아니면 교양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2012년 방송 프로그램 유형분류와 관련된 두 가지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이다.

방송법 제69조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서 보도, 교양, 오락의 삼분류 체계에 포함되는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보도 프로그램은 뉴스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뉴스 프로그램은 종합 뉴스, 스트레이트 뉴스, 지역 뉴스, 북한 뉴스, 국제 뉴스, 경제 뉴스, 기상 뉴스, 스포츠 뉴스, 비정규 편성 보도(특별행사중계, 기자회견, 재난방송 등)를 포함한다. 교양 프로그램은 시사정보,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의미한다.[13)]

오락 프로그램은 드라마, 버라이어티 쇼, 오디션/서바이벌, 토크 쇼, 코미디, 영화, 음악 쇼, 스포츠이다. 애니메이션과 퀴즈쇼의 경우 프로그램의 기능과 내용에 따라서 교양 혹은 오락으로 분류한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시청 대상의 수준을 고려해서 교육적 목적이 뚜렷하며 폭력적이지 않은 내용일 때 오락이 아니라 교양으로 분류한다. 반면 <포켓몬스터>나 <유희왕> 같은 애니메이션은 오락으로 구분한다. 퀴즈쇼의 경우, 청소년 대상인 <도전 골든벨>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식 고양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면 교양 프로그램으로 분류한다. 이것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2항 “어린이・청소년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교양으로 구분한다는 규정에 따랐다. 이밖에도 오락 프로그램의 범주에 속해있다고 하더라도 자선 등 공익적 캠페인 전개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양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교양으로 분류할 수 있다.

13) 교양 프로그램에 속하는 각각의 프로그램 유형 정의는 이 보고서 66~72쪽 참고.

〈표 7-1〉 보도·교양·오락 프로그램 유형분류

보도	교양	오락
뉴스 (종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지역뉴스, 북한뉴스, 국제뉴스, 경제뉴스, 기상뉴스, 스포츠뉴스, 비정규편성보도(기자회견, 재난방송, 특별행사중계 등)	시사정보	드라마
	다큐멘터리	버라이어티 쇼
	생활정보	오디션/서바이벌
	토론	토크쇼
	교육·문화예술	코미디
		영화
		음악쇼
		스포츠
	애니메이션, 퀴즈와 게임쇼	

편성비율 산정은 방송사들이 제시하는 편성표에 기반 하지 않고, 실제 방송된 프로그램의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한다. 방송사들이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서 제시하는 편성표와 실제 방송 프로그램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편성비율 산정과 관련해서, 스포츠의 경우, 방송법 제2조 25항 보편적 시청권, 방송법 70조 2항과 3항(방송 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1조(편성비율 산정 및 산정제외 방송시간) 4항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그 밖의 주요 행사 또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은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은 편성비율산정에서 제외한다. 편성비율은 <표 7-1>의 유형분류 기준에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 유형을 분류해서 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편성비율 산정과 관련해서 방송사나 시민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방송법 제69조 3항과 방송법 시행령 50조 1항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이하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특정 방송사가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를 위반했을 때, 그 방송사는 특정 프로그램의 유형분류를 놓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방송사는 특정 프로그램의 유형을 다르게 해석해서 오락이 아니라 교양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특정 프로그램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 것인지 그래서 오락인지 교양인지 판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안(案)을 제시할 수 있다.

(가칭)'방송 프로그램 유형 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다. 판정위원회의 역할은 세 가지이다. 첫째, 판정위원회는 방송법 제69조(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등)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방송 프로그램 편성 등) 2항에 따라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산정하는 것이다. 현재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산정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편성비율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판정위원회는 분기별로 편성비율을 산정해서 보고서로 제출하고, 분기별 보고서에는 프로그램 유형분류 기준을 적용해서 매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 비율을 담는다.

둘째, 판정위원회는 특정 방송사가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위반했을 때, 이의를 제기할 경우 특정 프로그램의 유형이 어디에 속하며, 보도인지, 교양인지, 오락인지를 판정한다.

셋째, 판정위원회는 각 방송사 편성담당자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방송사들이 방송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편성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안의 장점은 판정위원회의 설치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프로그램 유형분류 주체를 명확히 하고, 방송사들이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사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신속하게 위반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반면 방송평가위원회의 편성평가와 역할이 중복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정위원회는 편성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평가위원회는 판정위원회가 발표하는 유용한 편성자료를 토대로 방송편성 영역의 평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역할의 중복이 아니라, 편성분석과 활용이라는 유기적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제 2 절 방송 프로그램 세부 분류기준과 편성비율 산정에 관한 고시(안)

제1조 (목적) 이 고시는「방송법」제69조 제3항 및「방송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2항,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의 세부유형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방송법」제69조 제3항 및「방송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이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하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3조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①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은 취재 보도, 논평 또는 해설인 의견보도 방송 프로그램과 비정규편성보도(특별행사중계, 기자회견, 재난방송, 선거방송)를 말한다. ②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유형은 뉴스 프로그램과 비정규편성보도이다.

제4조 (교양에 관한 프로그램) ① 교양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은 지식(정보), 예술, 교육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교양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유형은 시사정보,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토론,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제5조 (오락에 관한 프로그램) ①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은 정서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은 드라마, 버라이어티 쇼, 오디션/서바이벌, 토크쇼, 코미디, 영화, 음악 쇼, 스포츠, 퀴즈와 게임쇼,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다.

제6조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의 유형)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의 유형인 뉴스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종합 뉴스는 사건보도(단순보도, 심층, 해설을 포함)
2. 스트레이트 뉴스는 사건 단순보도(20분 이하의 뉴스)
3. 지역 뉴스는 지역 관련 보도 및 해설
4. 스포츠 뉴스는 스포츠 관련 보도 및 해설
5. 북한 뉴스는 북한 관련 보도 및 해설
6. 국제 뉴스는 국제 관련 보도 및 해설
7. 경제 뉴스는 경제 관련 보도 및 해설
8. 기상 뉴스는 기상 관련 보도 및 해설
9. 비정규 편성보도는 선거방송, 특별행사중계, 기자회견, 재난 방송 등

제7조 (교양에 관한 프로그램의 유형) 교양에 관한 프로그램의 유형인 시사정보,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토론, 교육문화예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시사정보는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정보 프로그램(뉴스 프로그램과 토론 프로그램 제외)으로, 종합 시사정보, 심층시사, 시사토크쇼, 시사기획, 미디어 비평, 시청자 평가와 참여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2. 다큐멘터리는 보통 야외촬영을 통해서 현실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내는 프로그램으로, 인간, 역사/기행, 자연/과학, 환경, 교육/문화, 리얼리티, 종합 다큐멘터리 등을 포함한다.
3. 생활정보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지식, 상식, 흥미있는 정보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가정(가사, 요리), 건강, 생활경제, 해외, 문화레저, 법률, 자선/모금, 소수대상,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4. 토론은 사회적 현상과 과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의견제시, 분석, 설명, 평가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으로, 토론과 대담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5. 교육・문화예술은 유아교육,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사회 교양 강좌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 전통문화예술과 현대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유아교육, 교육일반, 전통문화예술, 현대문화예술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제8조 (오락에 관한 프로그램의 유형) 오락에 관한 프로그램의 유형인 드라마, 버라이어티 쇼, 오디션/서바이벌, 토크쇼, 코미디, 영화, 음악 쇼, 스포츠, 퀴즈와 게임 쇼,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드라마는 서사 구조를 지니는 허구적 구성물로, 멜로, 홈, 로맨틱, 역사, 경찰, 무협/액션, 학교, 전원, 단막극, 외국 드라마를 포함한다.

2. 버라이어티 쇼는 토크 버라이어티 쇼, 연예정보 쇼, 연예시상식, 비디오 모음집, 이에 속하지 않는 오락 종합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3. 오디션/서바이벌은 경쟁과 경연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오디션과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4. 토크쇼는 오락 등을 중심으로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프로그램으로, 토크쇼와 이에 속하지 않는 기타 토크쇼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5. 음악 쇼는 대중음악 일반을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가요순위 쇼, 토크 음악쇼, 가요쇼, 이에 속하지 않는 기타 음악쇼를 포함한다.

6. 퀴즈와 게임쇼는 지식, 재치, 실력을 거루는 프로그램으로, 퀴즈 쇼, 게임쇼, 이에 속하지 않는 기타 퀴즈 게임쇼를 포함한다.

7. 영화는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허구물로,「방송법」제71조와「방송법 시행령」제57조,「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제8조에 따라 국내제작과 국외제작 영화를 포함한다.

8. 코미디는 프로그램 전체의 목적이 희극적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꽁트 코미디, 시트콤, 이에 속하지 않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9. 스포츠는 스포츠 뉴스와 특정 스포츠의 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제외한 모든 종류의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국가대항전, 국내 프로경기 및 아마추어 경기, 외국 프로경기 및 아마추어 경기, 바둑과 장기 중계 등의 기타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10. 애니메이션은 실사영화와 다르게 다양한 제작방식을 통해서 구현되는 셀 애니메이션, 클레이 애니메이션, 페이퍼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으로「방송법」제71조와「방송법 시행령」제57조,「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제8조에 따라 국내제작과 국외제작 애니메이션을 포함한다.

제9조 (애니메이션과 퀴즈 쇼의 교양 판정) ① 애니메이션은 오락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지만,「방송법 시행령」제50조 2항에 따라 애니메이션의 경우 유아나 어린이 교육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교양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퀴즈 쇼는 오락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지만, 청소년과 국민 교양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교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0조 (편성비율 산정) ①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방송사업자의 편성표 기준이 아니라 실제 방송된 프로그램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방송법」제70조 2항과「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제11조 4항에 따라 올림픽, 월드컵 등 국가대항전 프로그램의 경우는 오락 프로그램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제11조 (방송 프로그램 유형 판정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의 세부 분류기준과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 유형 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가칭)"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판정위원회(가칭)"는「방송법」제69조와「방송법 시행령」제50조에 따라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산정하고, 분기별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발표한다. ③ "판정위원회"(가칭)는 프로그램 유형분류 기준이 모호한 경우에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유형 여부를 결정한다. ④ "판정위원회(가칭)"의 구성, 위원자격, 직무와 운영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내부규칙으로 정한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강형철 (2012).『공영방송 재창조: 공영방송에서 공영미디어로』. 나남.

김미라 (2008). 리얼 버라이어티 쇼의 재미 유발 기제에 관한 연구.『방송통신연구』, 통권 67호, 143~168.

김수정 (2007). 오락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규제의 쟁점과 프로그램 분류체계의 과제.『미디어 경제와 문화』, 5권 1호, 7~54.

_____ (2010). 글로벌 리얼리티 게임쇼에 나타난 '자기통제'의 문화정치" <프로젝트 런웨이>와 <도전! 수퍼모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한국방송학보』, 24권 6호, 7~44.

_____ (2011). 한국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정서구조와 문화정치학.『방송문화연구』, 23권 2호, 37~72.

김예란・박주연 (2006). TV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한국방송학보』, 20권 3호, 7~48.

김정섭・박주연 (2012). 지상파TV 주시청시간대 프로그램의 포맷 다양성 변화 연구: 2000년, 2005년, 2010년 가을시즌 편성 비교를 중심으로.『한국언론학보』, 56권 1호, 289~313.

김정태 (2007).『디지털 시대의 방송법 해설』. 커뮤니케이션북스.

남윤미 외 (2011).『스마트 미디어 시대 편성정책의 방향』. 방송통신위원회.

류웅재・박진우 (2012). 서바이벌 포맷 프로그램에 침투한 신주의주의 경쟁담론: 프로그램의 채택과 제작과정에 대한 생산자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방송문화연구』, 24권 1호, 139~166.

박기성 (2006). 텔레비전 방송 편성과 편집의 제도화.『한국방송학보』, 20권 5호, 106~146.

박소라 (2003). 경쟁 도입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980년 이후 지상파 방송 편성표 분석을 통하여.『한국언론학보』, 47권 5호, 220~250.

방송위원회 (2001).『다매체, 다채널 시대 편성 정책 연구』. 방송위원회.

안정임・송현경・전경란 (1993).『텔레비전 프로그램 유형 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이원우 외 (2010).『방송 편성규제 법령 정비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이준호 (1998). 정부정책과 방송사 경쟁구조의 변화에 따른 편성 다양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 1962~1995.『한국방송학보』, 10호, 257~288.

윤태진 (2011). 정서적 참여와 실재(reality)의 재구성: 한국 리얼리티 텔레비전 쇼의 작동 방식에 대한 고찰.『방송문화연구』, 23권 2호, 17~37.

이은미 (2001). 1990년대 텔레비전 다양성 분석: 지상파 방송의 프라임 타임대 프로그램 다양성 변동을 중심으로.『한국언론학보』, 46권 1호, 388~412.

이종수 (2008). 오디션 리얼리티 쇼와 현대 여성의 '통과의례'.『미디어, 젠더 & 문화』, 통권 9호, 51 ~86.

장호순 (2002). 방송법의 현실과 문제점.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발표문.

조성호 (2000). 텔레비전 방송사의 편성 전략 분석: 개편시 변경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한국방송학보』, 14권 1호, 387~428.

주창윤 (2004).『텔레비전 프로그램 장르 설정 기준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최민재・김수정 (2007).『방송법에 규정된 프로그램 장르분류기준의 재개념화와 세분화를 통한 방송정책 공익성 강화방안 연구』. 한국언론재단.

한진만 (2011). 한국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편성 추이와 특성.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발표문.

현대원・노동렬 (2011).『방송프로그램 정보 표준 분류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해외 문헌

Brown, M. E. (1994). *Soap Opera and Women's Talk: The Pleasure of Resistance*. London: Sage.

Brunsdon, C. (1990). "Television: Aesthetics and Audience." In P. Mallencamp(ed.). *Logics of Television: Essays in Cultural Criticism*. (pp.59~72).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 Press.

Blumler, J. G. (1991). "In Pursuit of Programme Range and Quality." *Studies of Broadcasting*, 27(March), pp.191~206.

Clement, C. (2003). *La Nuit et l'ete: Papport sur la culture a la television*. 하윤금・이정순 역.『밤과 여름: 프랑스 TV의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서』. 커뮤니케이션북스.

Feuer, J. (1984). "Melodrama, Serial Form and Television Today." *Screen,* 25(1), pp.4~16.

Kilborn, R. (1992). *Television Soaps*. London: Batsford.

McQuail, D. (1992). *Media Performance: Mass Communication and the Public Interest*. London: Sage.

Napoli, (1999). "Deconstructing the Diversity Principle." *Journal of Communication*, 49(4), pp.7~34.

Neale, S. (1980). *Genre*. London: British Film Institute.

Wilerman. S. S. & Owen. B. M. (1985). "Program Competition, Diversity and Multichannel Bundling in the New Video Industry. In Noam. E. M.(ed.). *Video Media Competition: Regulation, Economics and Technology*. Columbia University Press.

● 저 자 소 개 ●

주 창 윤

·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석사
· Univ. of Glasgow, Film & TV 석사
· Univ. of Glasgow, Film & TV 박사
· 현 서울여대 방송영상학과 교수

황 성 연

·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석사
·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박사
· 현 AGB닐슨미디어리서치 연구위원

유 승 현

· 한양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석사
·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박사
· 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강사

방통융합미래전략체계연구 지정2012-19

방송 프로그램의 세부 분류기준 및 도입방안 연구

2012년 10월 일 인쇄
2012년 10월 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TEL: 02-750-1114
E-mail: webmaster@kcc.go.kr
Homepage: www.kcc.go.kr
인 쇄 형우디앤피